

# No Pain, No Gain!

2022. 07. 20.

**‘혁신 24, 새로운 미래’ 발제**



**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재완**  
jbahk@skku.edu

I

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

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

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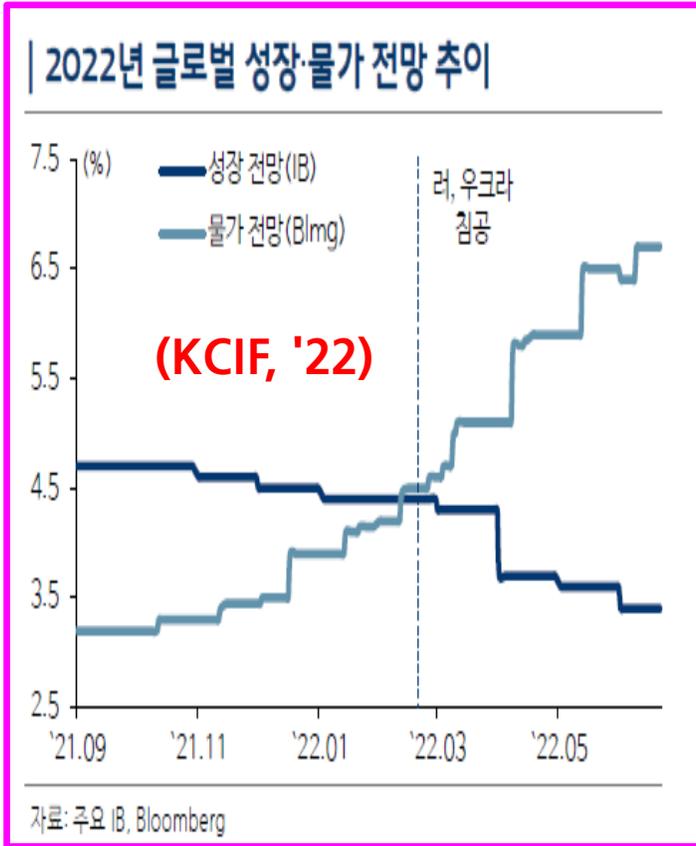
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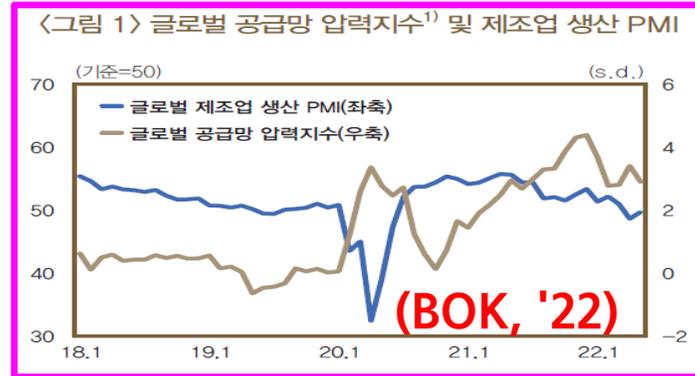
침로

# 1. 경기 침체의 전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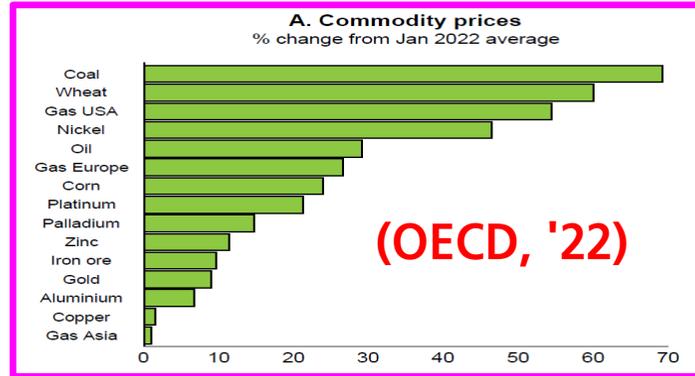
## '22년 급변한 세계경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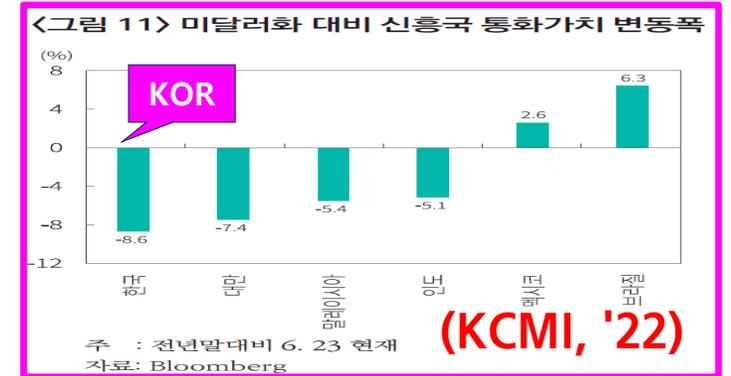
## 공급망 애로로 제조업 고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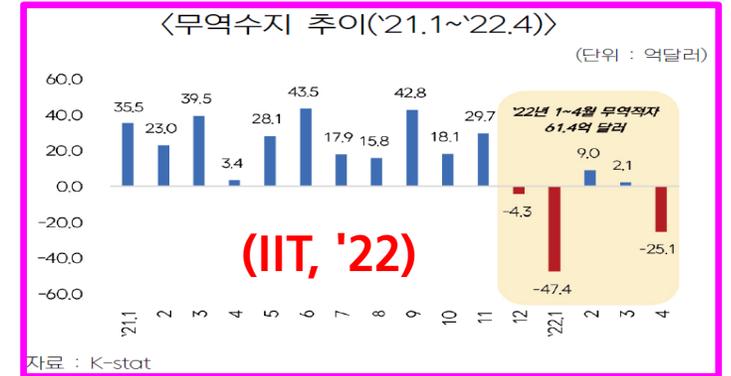
## '22년 상반기 원자재가 폭등



## '22년 원화 가치 가파른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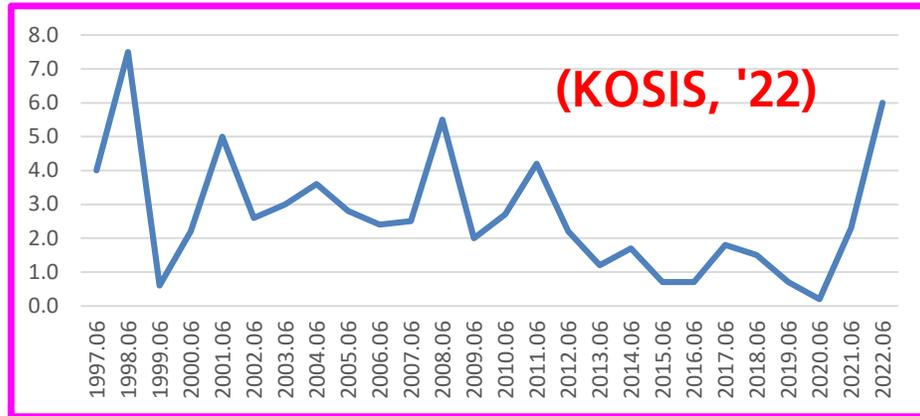


## 고환율에도 이례적 무역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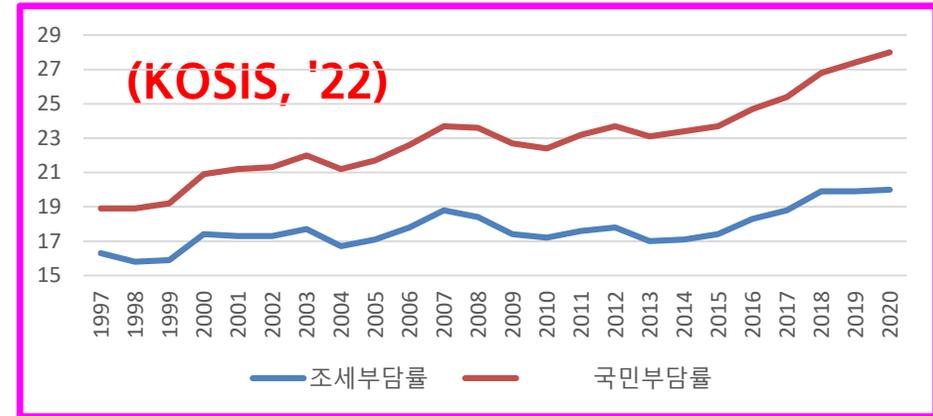


## 2. 민생고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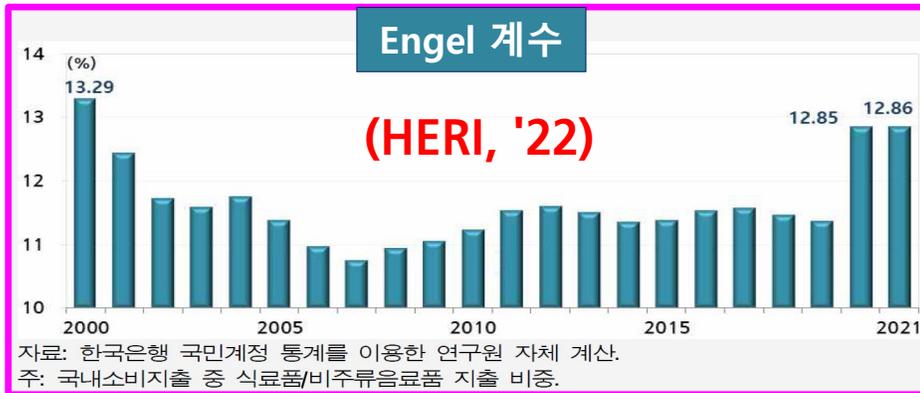
### 물가상승률: '98년 후 최고



### 조세와 국민부담: 역대 최고



### 식품/소비 비중: '00년 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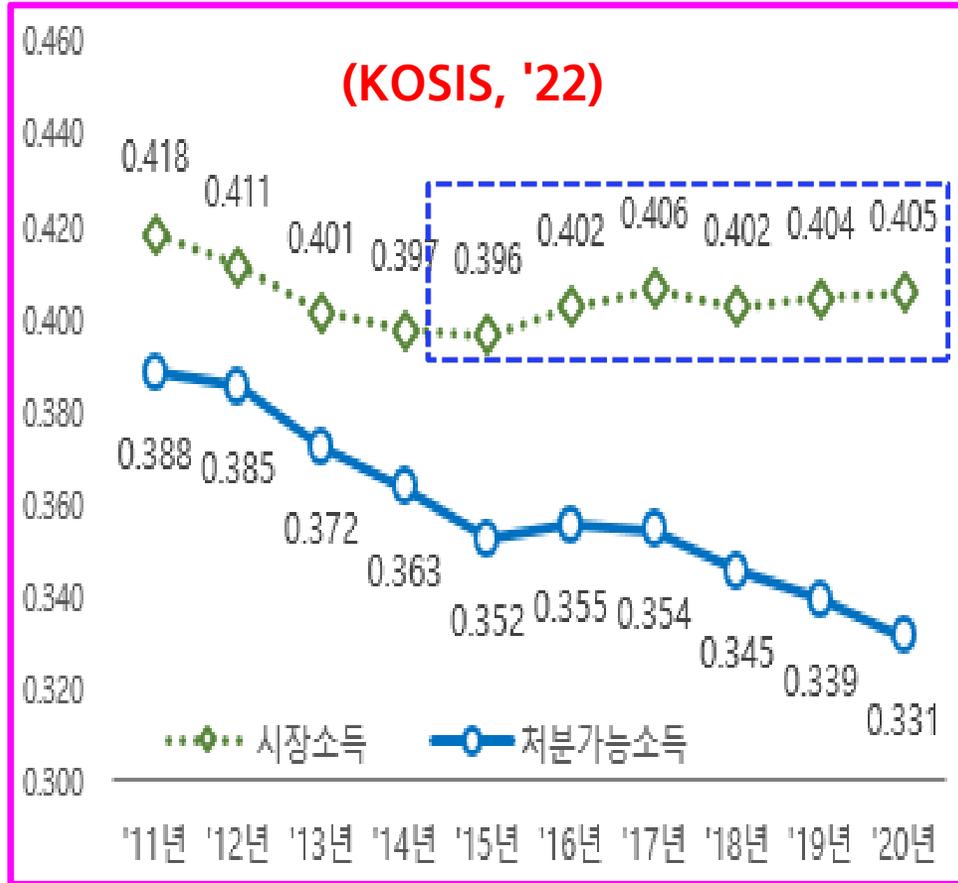


### (임대료+광열비)/소비: '05년 후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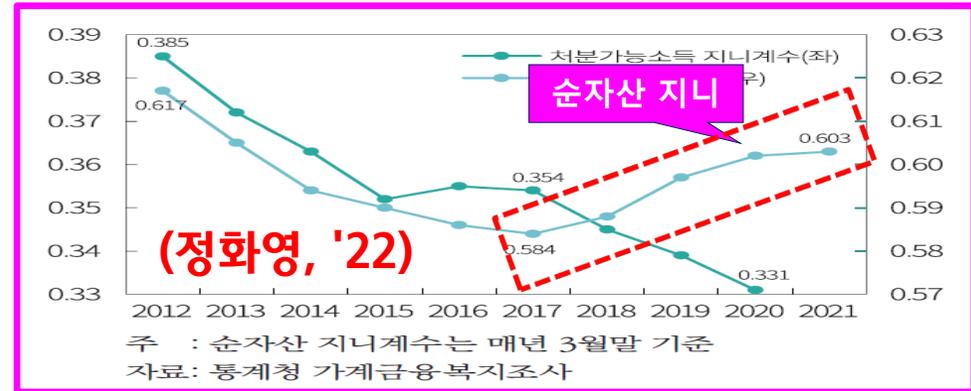


### 3. 격차 확대(I): 시장 소득과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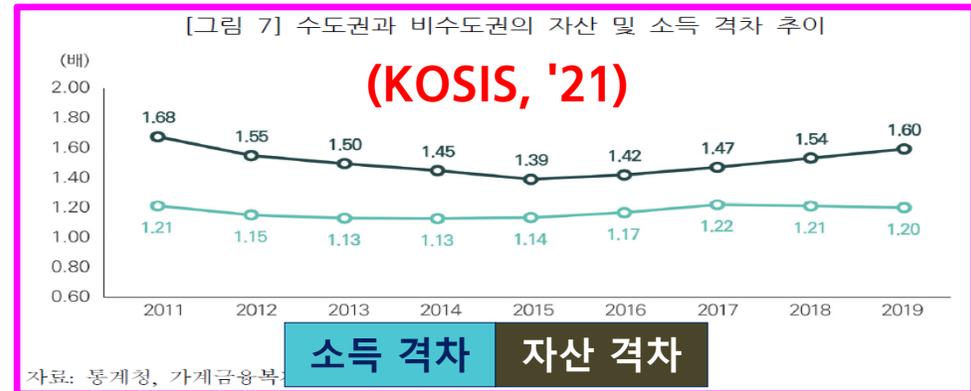
#### 시장 소득 분배는 답보/악화



#### 줄어들던 자산 격차 확대 추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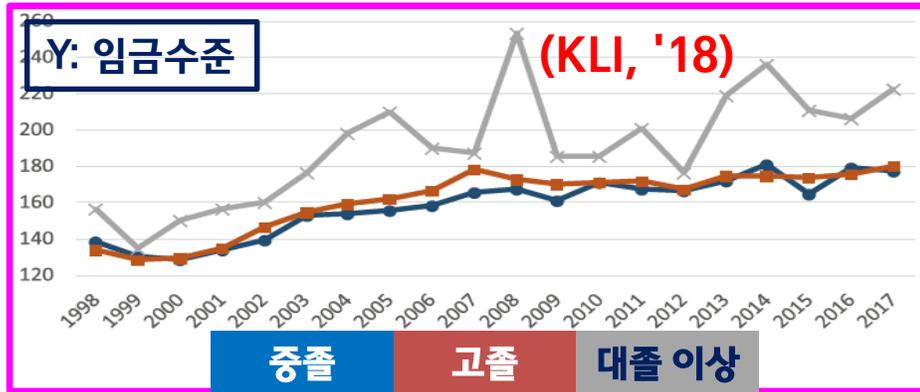


#### 수도권 vs. 지방의 자산 격차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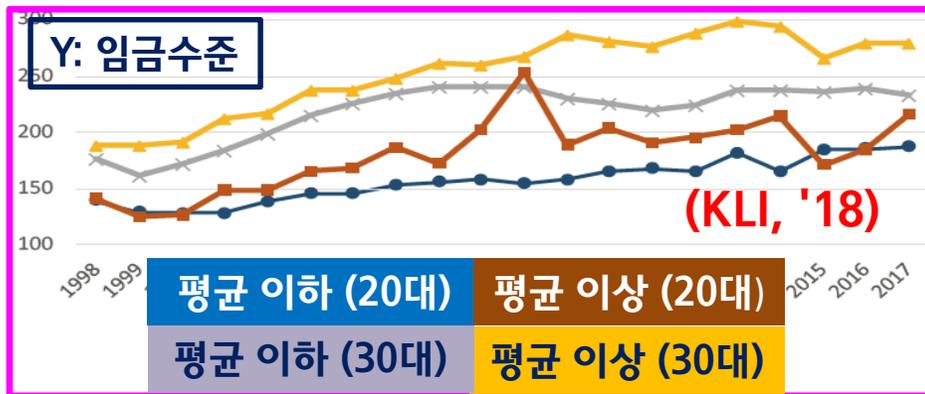


### 3. 격차 확대(II): 계층 대물림과 한계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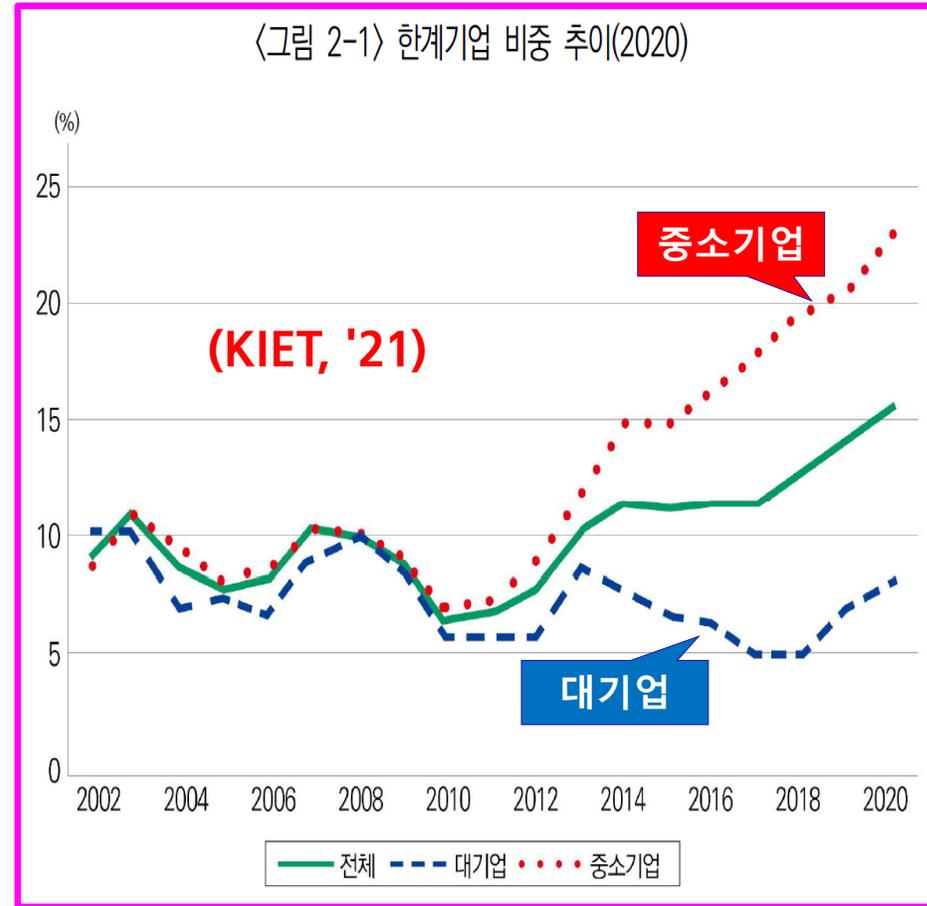
#### 아버지 학력과 20대 임금



#### 가구 소득계층과 20~30대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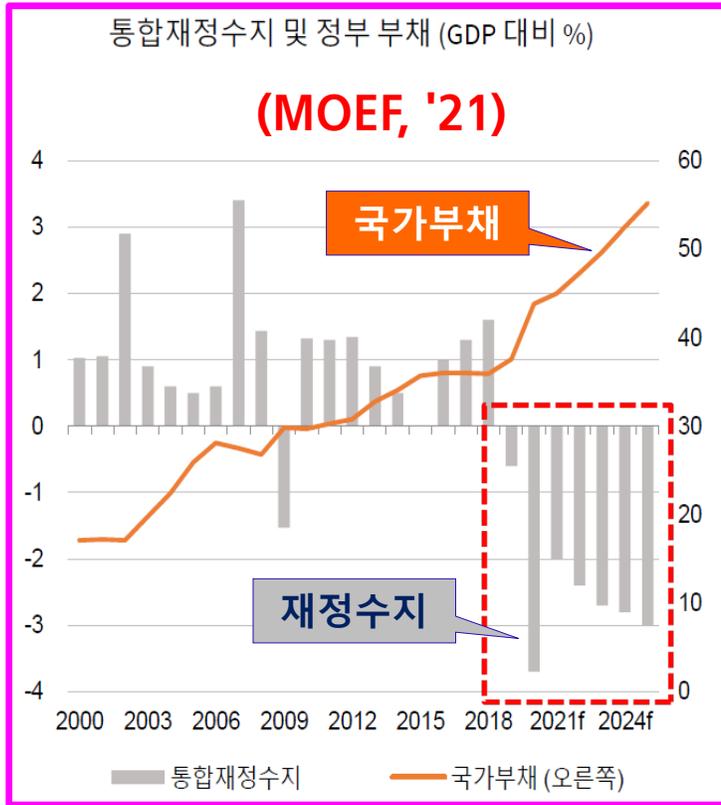


#### 한계 중소기업 비중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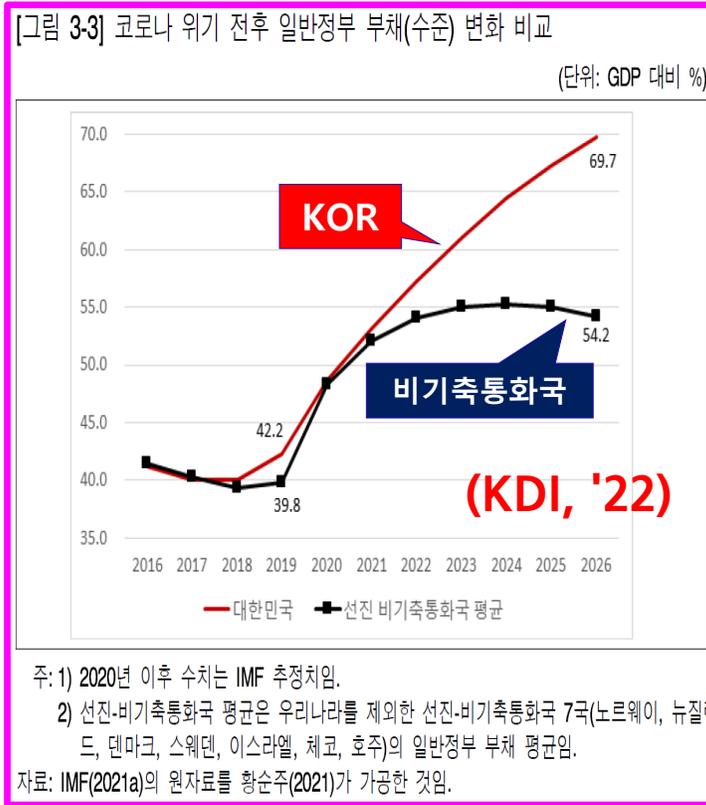


# 4. 정책 여력은 제약(I): 악화 일로의 재정건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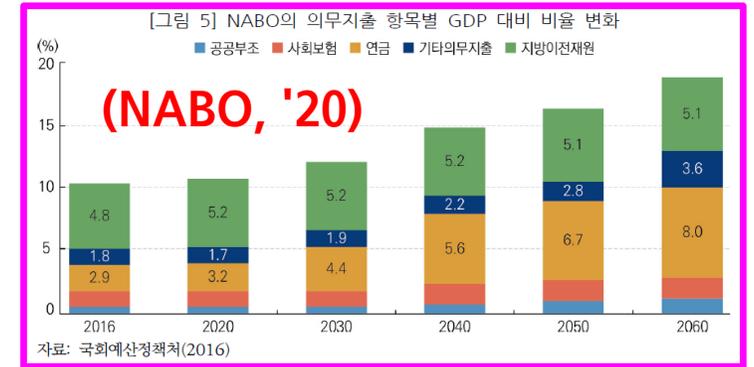
## 재정은 만성 적자로 전환



## 코로나 이후 정부 부채 변화



## 의무지출비율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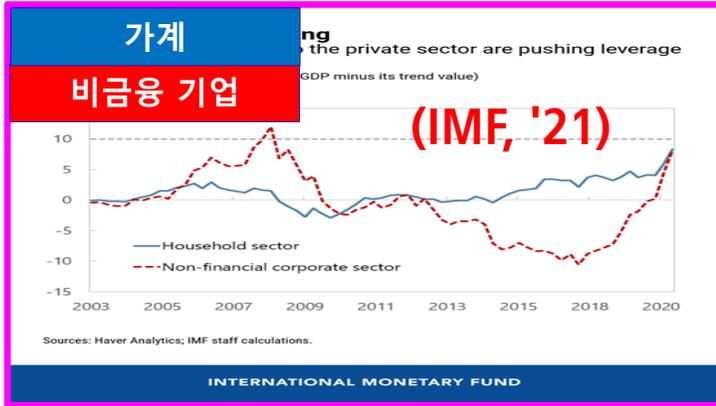
##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



➤ GDP 대비 국가채무가 '10년 30.8%에서 '25년 58.8%로 두배 가까이 급상승

# 4. 정책 여력은 제약(II): 민간 부채도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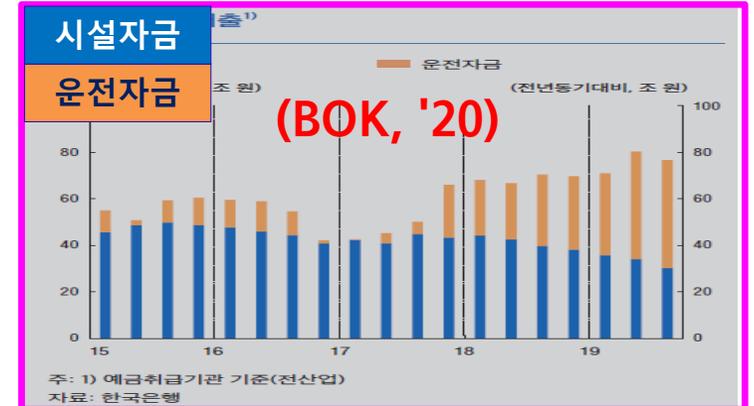
## 민간 신용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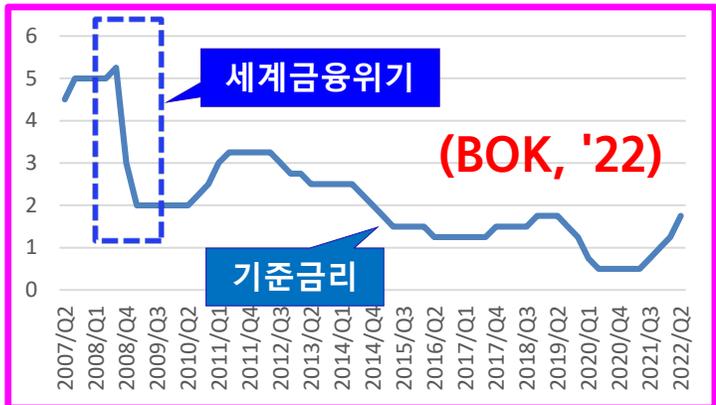
##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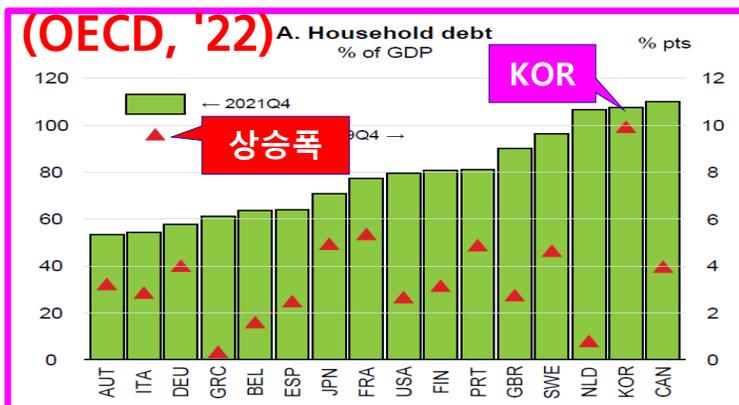
## 기업 대출의 用途 악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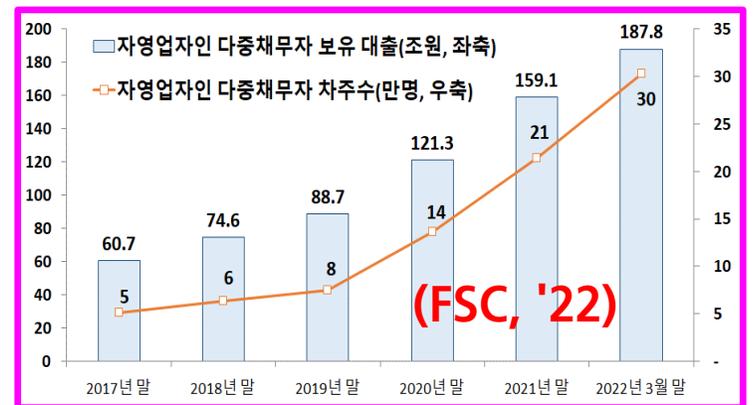
## 금리 인상 불가피



## 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상승폭 최고



## 다중 채무 개인사업자 급증



---

I

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

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

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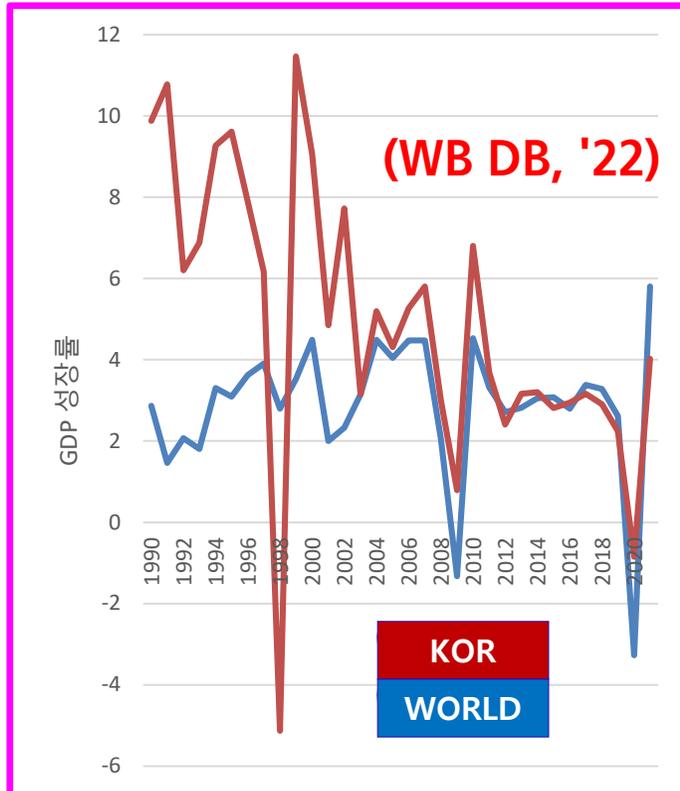
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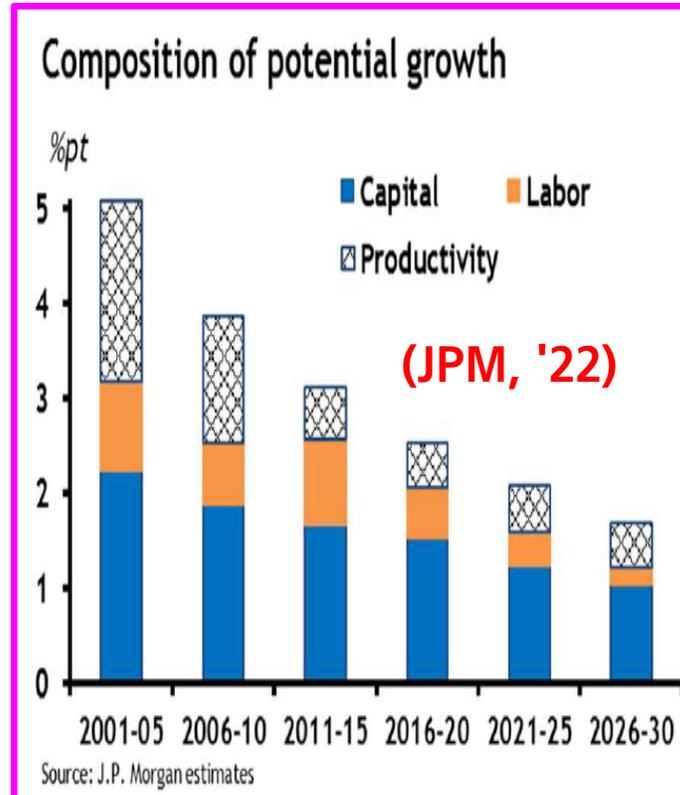
침로

# 저성장 기조 고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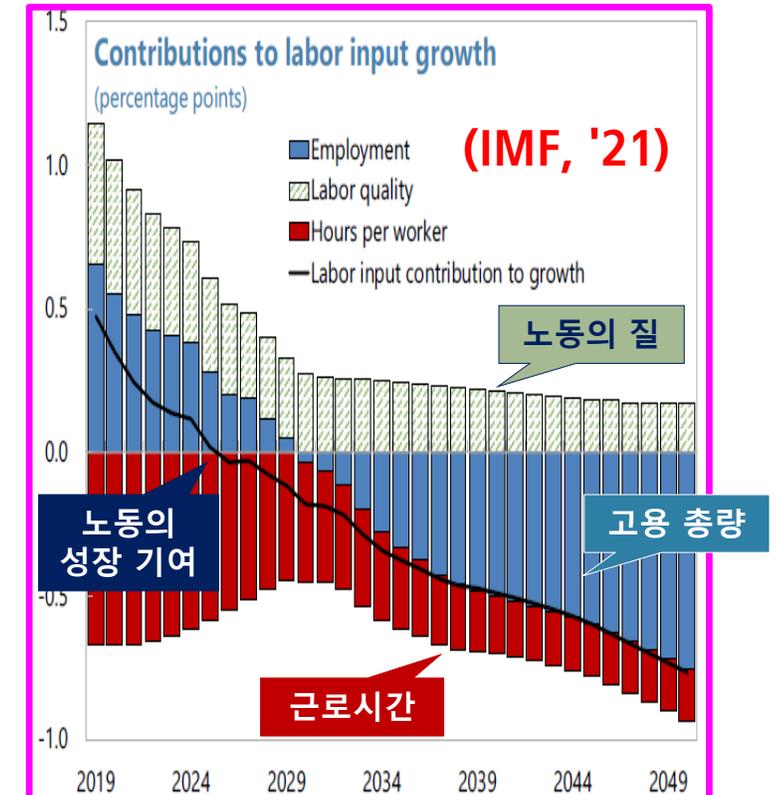
## 성장률이 세계경제에 근접/추월



## 잠재성장률 꾸준히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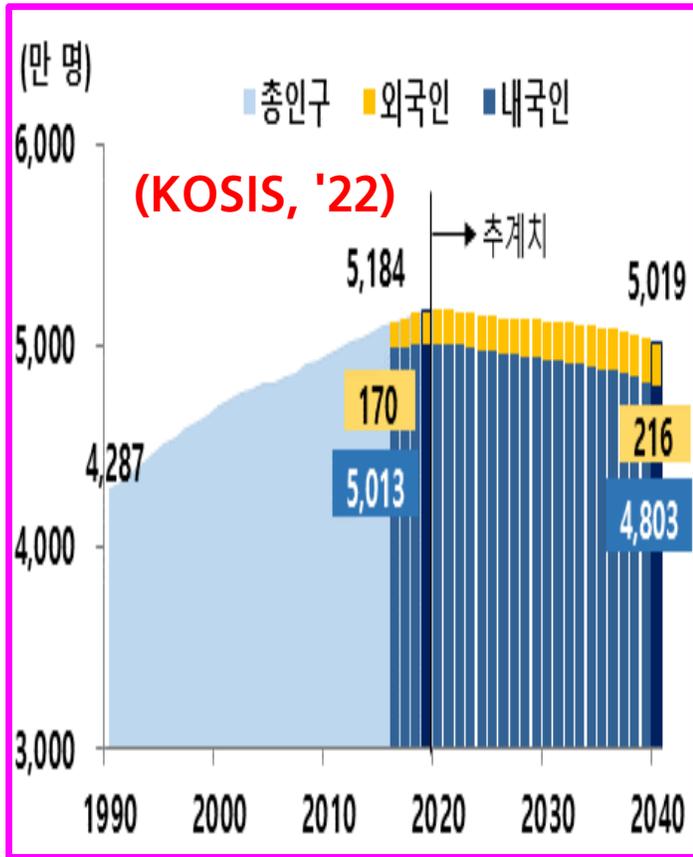


## 노동의 성장 기여도 곧 (-)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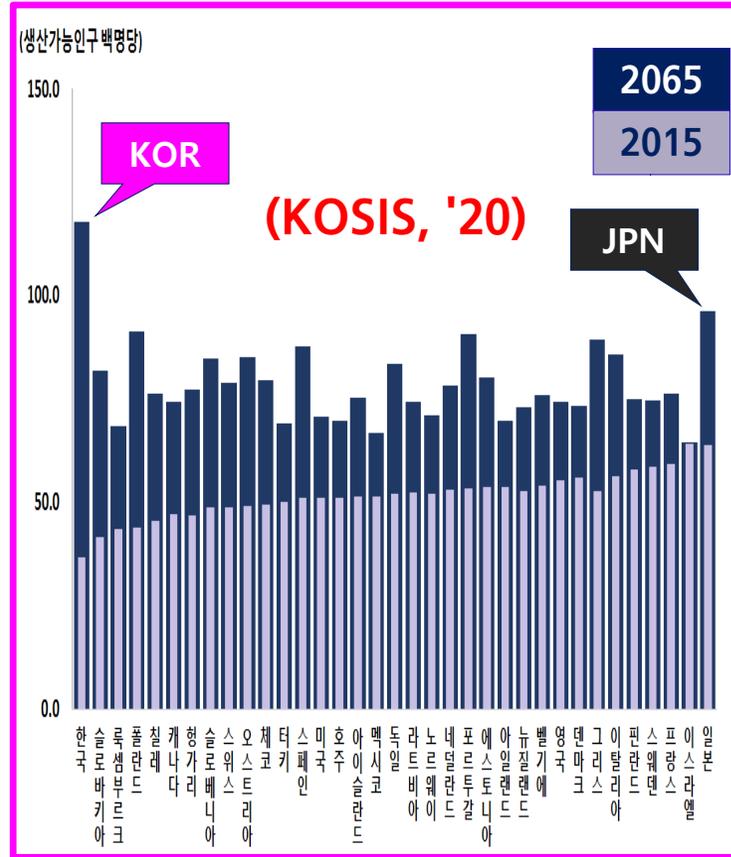


# 1. '인구 배당' 희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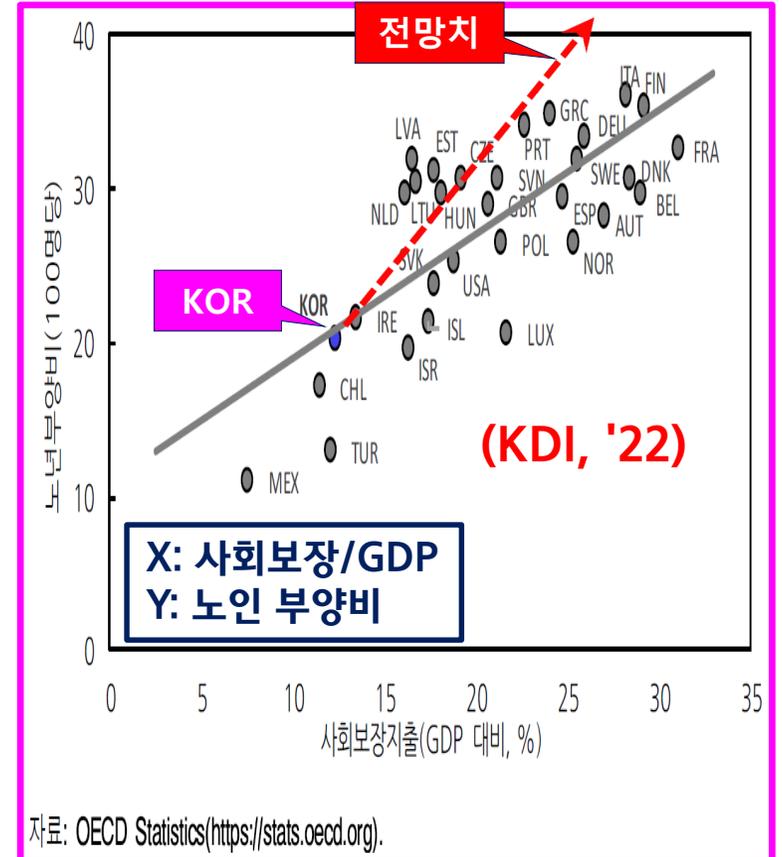
## 총인구 감소



## (노인+아동) 부양비 급등



## 부양비와 (사회보장/GDP) 비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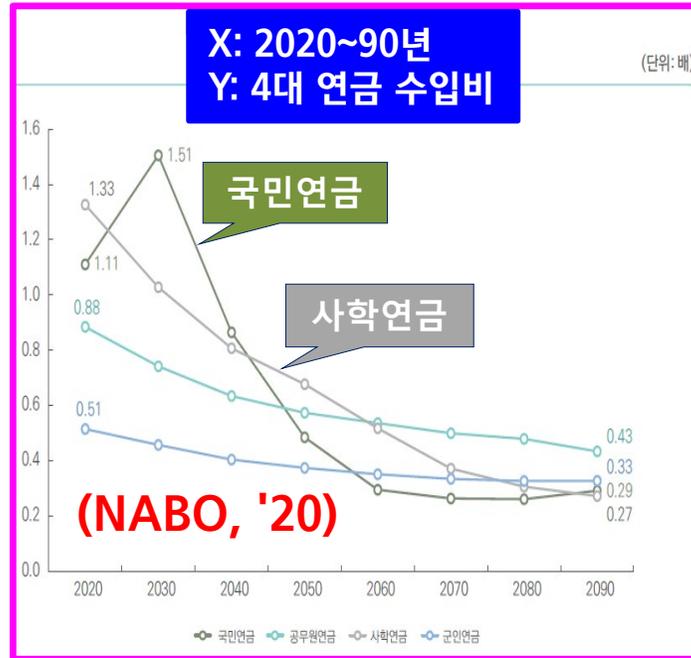


# 고령화/핵가족화 → 성장 둔화, 분배 악화, 재정압박 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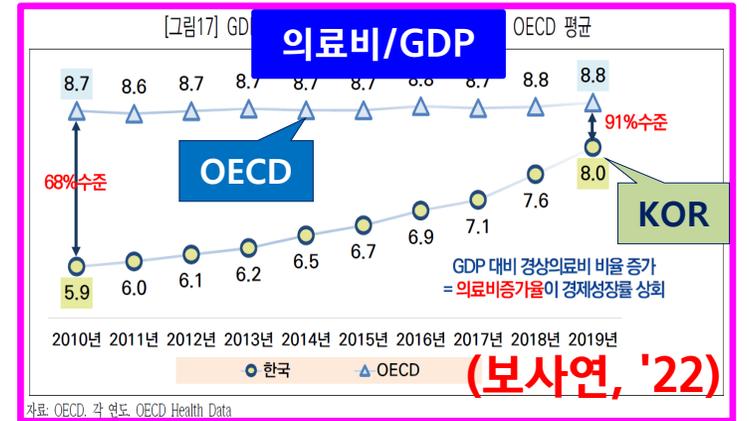
## 1인 세대 점증



## 공적 연금 건전성 악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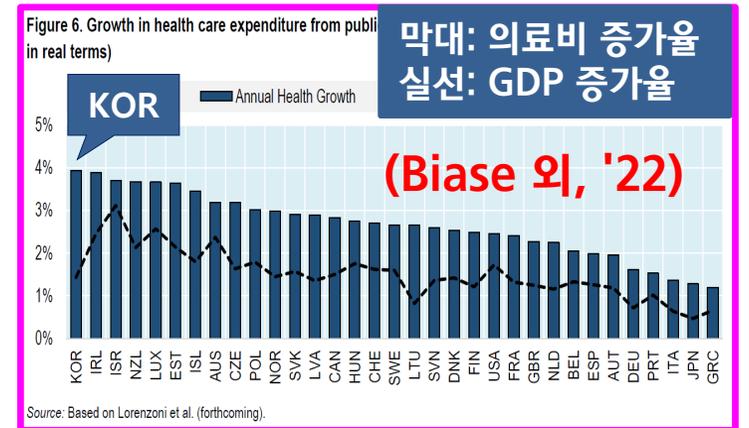
## 의료비 부담 가중



✓ 가족의 힘(美): 근로 윤리, 책임/자조, 저축 (CFS, '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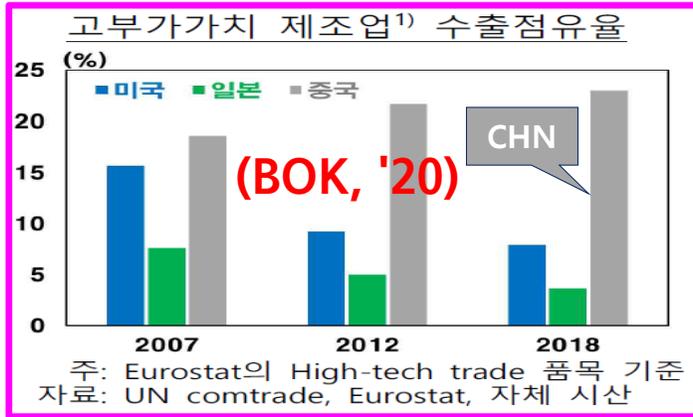
➤ 백인 가구 순자산: 흑인 가구의 10배

➤ 백인 1인 가구 순자산: 흑인 有배우자 가구의 1/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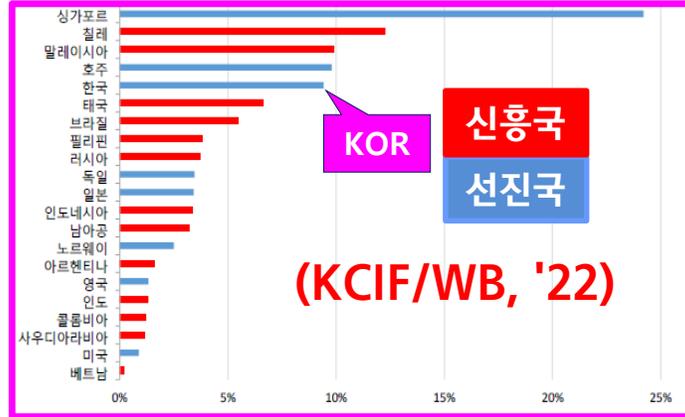


## 2. 중국의 추격/추월 → 제조업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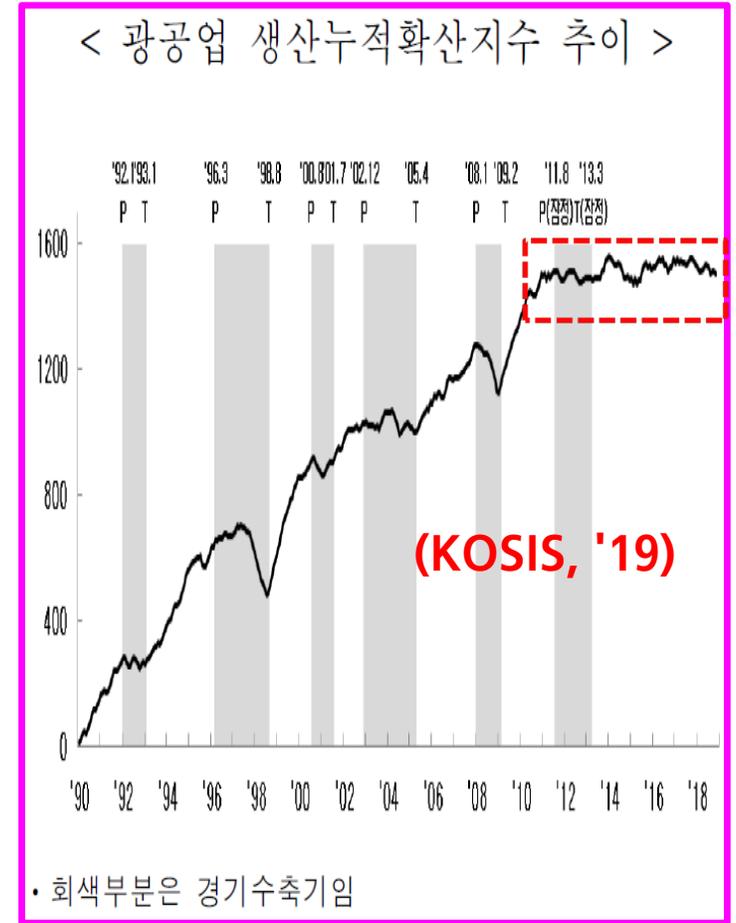
### 중국 제조업 급부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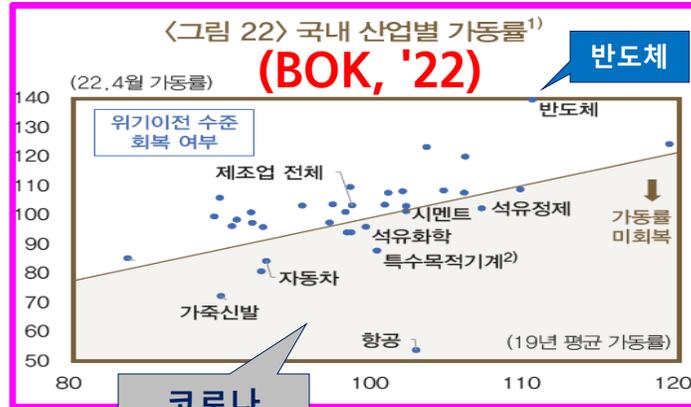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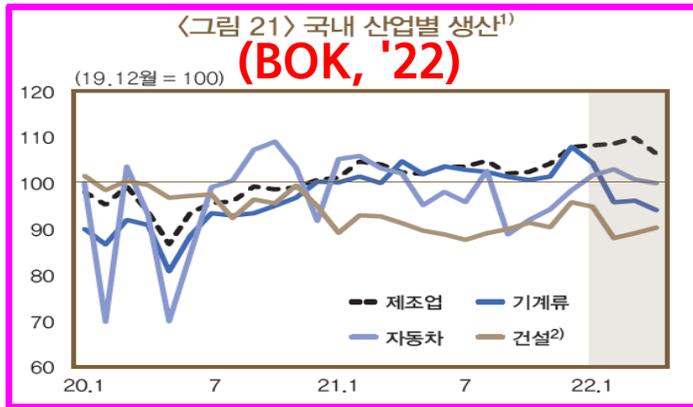
###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 과도



### 광공업 생산 역량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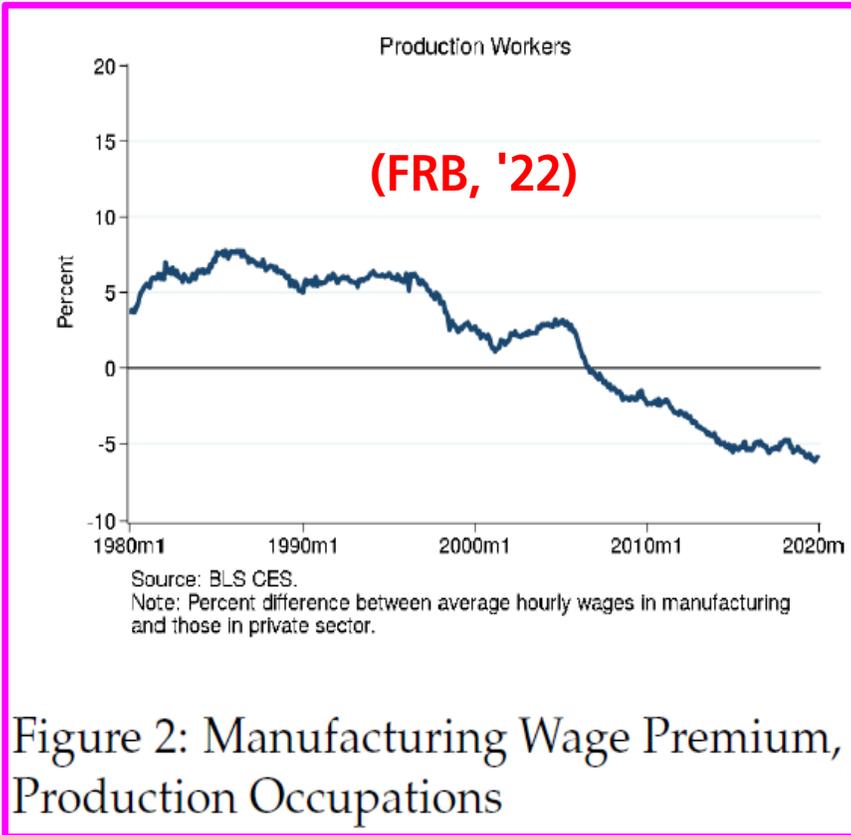


### 반도체 착시; 자동차/기계/건설 등은 '19년 수준에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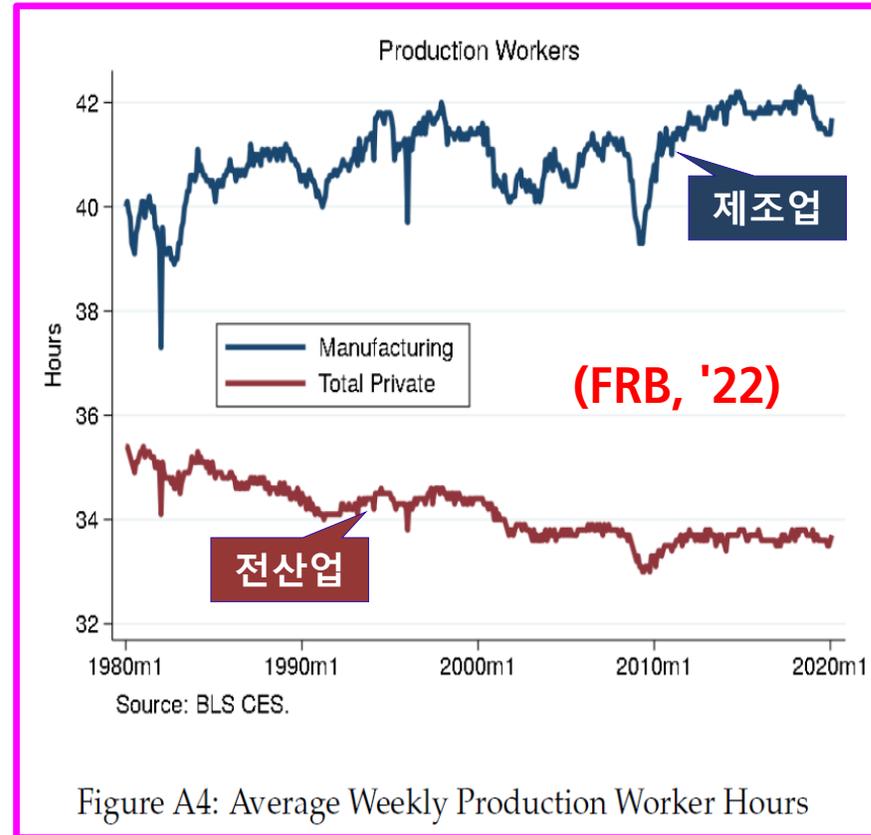


# 전성기를 지난 제조업 (美)

## 제조업 임금 프리미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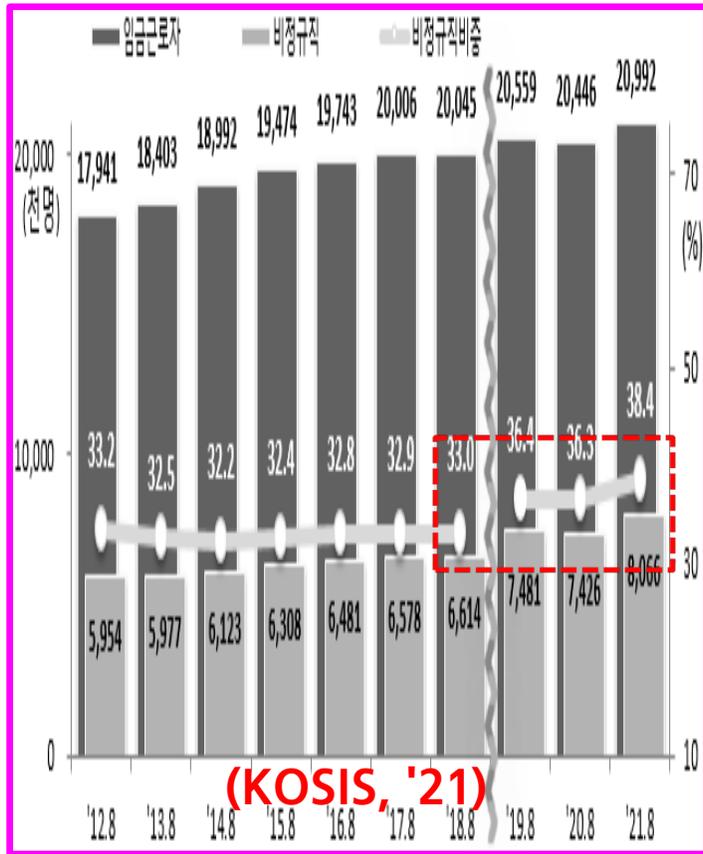


## 제조업 근로시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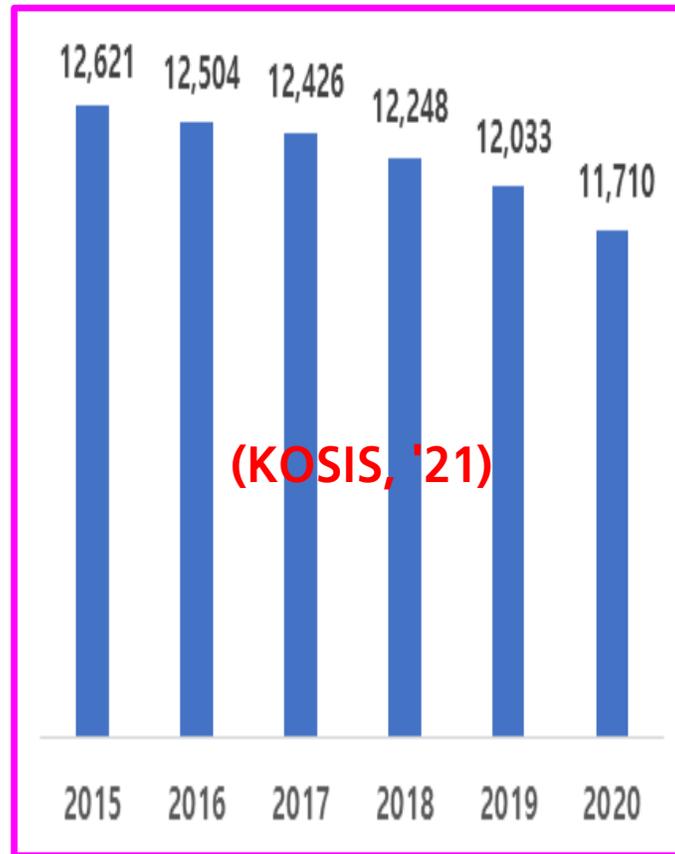


# 관참은 일자리 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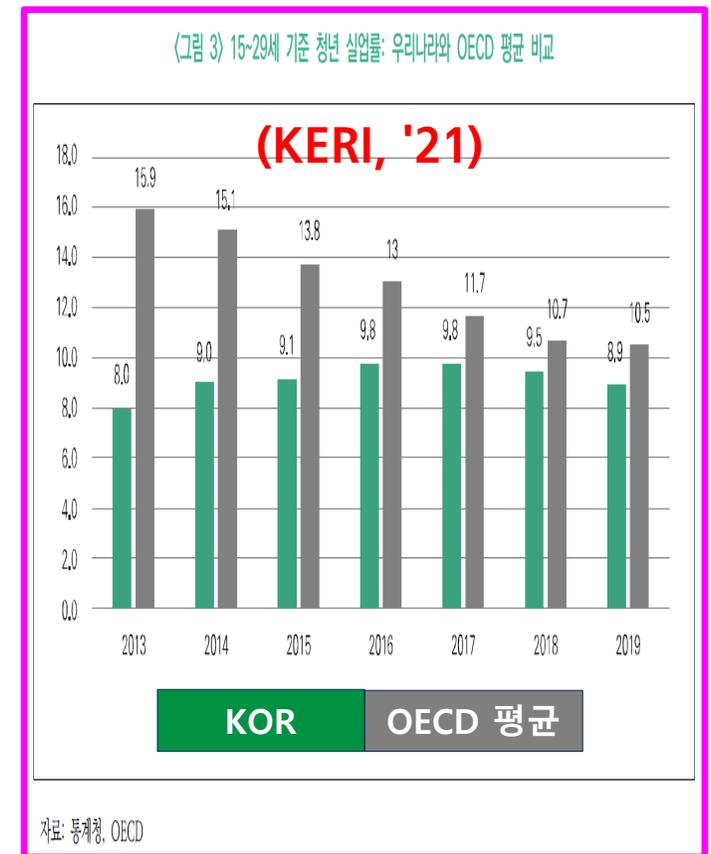
## 비정규직 비중 점증



## 30/40 취업자 감소



## 세계 추세와 반대인 청년 실업



---

I      **격랑 속 우리 경제**



II      **앞으로가 더 문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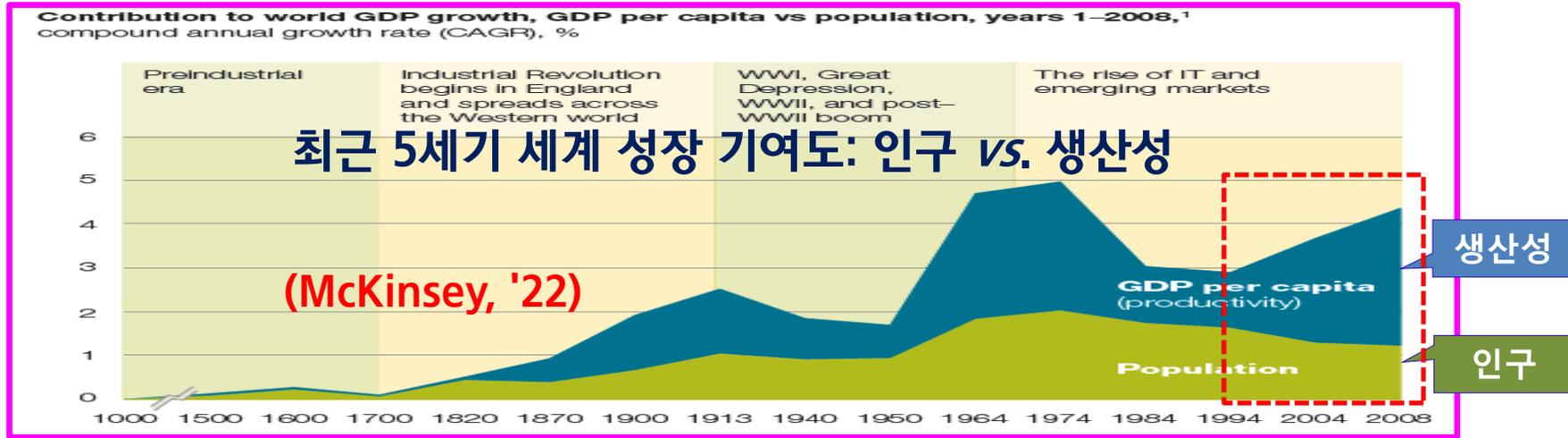


III      **걸림돌**



IV      **침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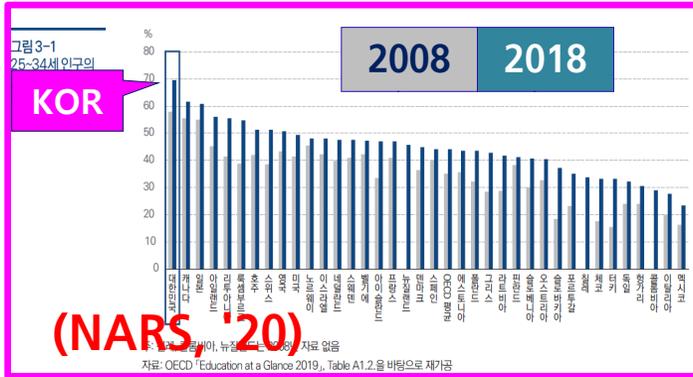
# 1. 민간(I): 인적 역량 확보 → 4차 산업혁명 추동에 장애



- 주입식 교육, 평가에 대비하는 '표충 학습' → 창의력 결핍
- 시장 수요와 고등교육 Mismatch → 필수 역량과 인적 역량 간 괴리
- 上命下服, 先例 답습, 책임 회피, 年功序列 문화 → 혁신 저해
- 장시간 근로와 부실한 평생학습 → 인적 자본 갱신/축적 미흡

# 청장년층: 학력/교육비는 최상위권 vs. 역량은 중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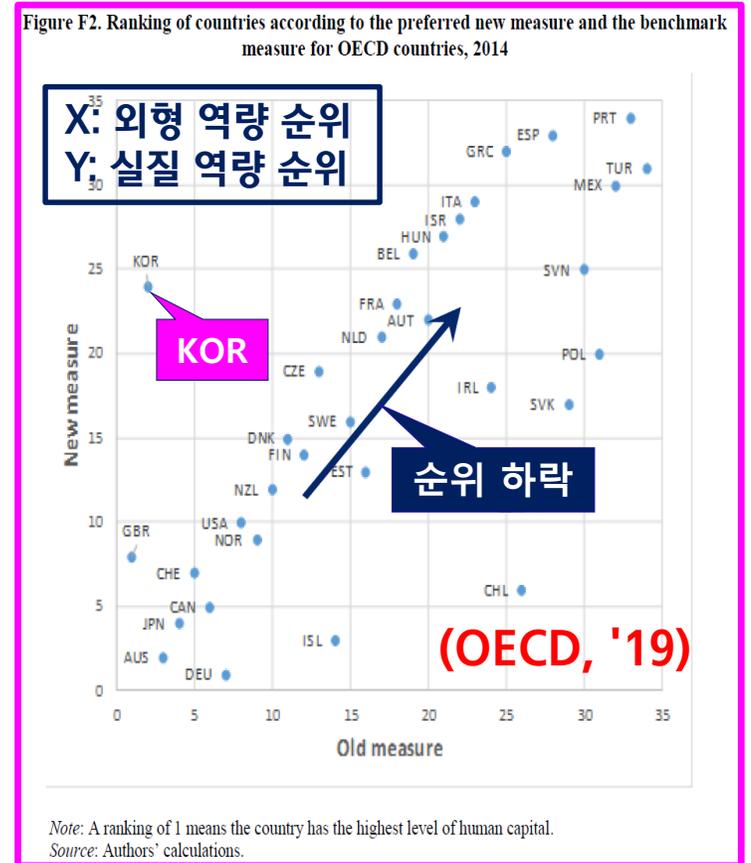
##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 으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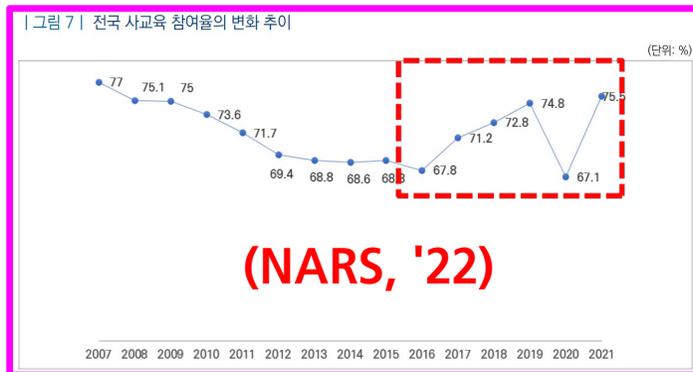
## 1인당 초/중등 교육비도 최고



## 외형 vs. 실질 역량의 간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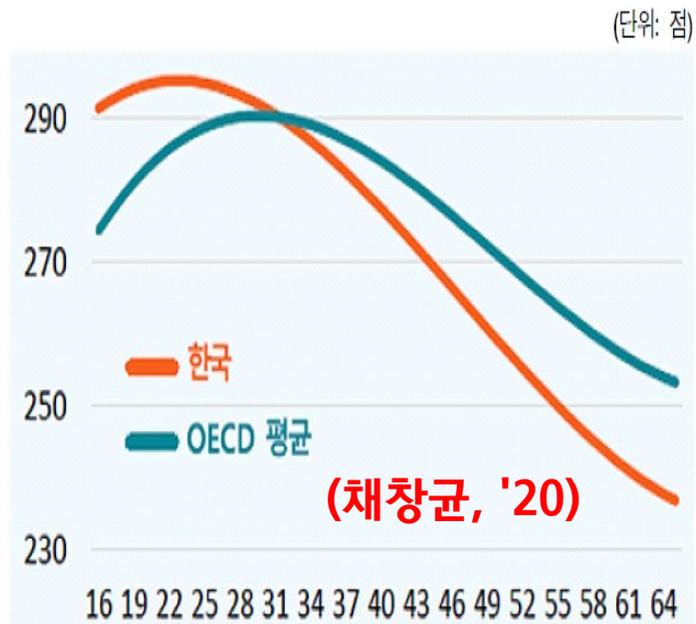
## 사교육 참여율 상승세 반전



# 나이 들수록 역량 급락 & 직장/평생학습 취약

## 연령별 PIAAC 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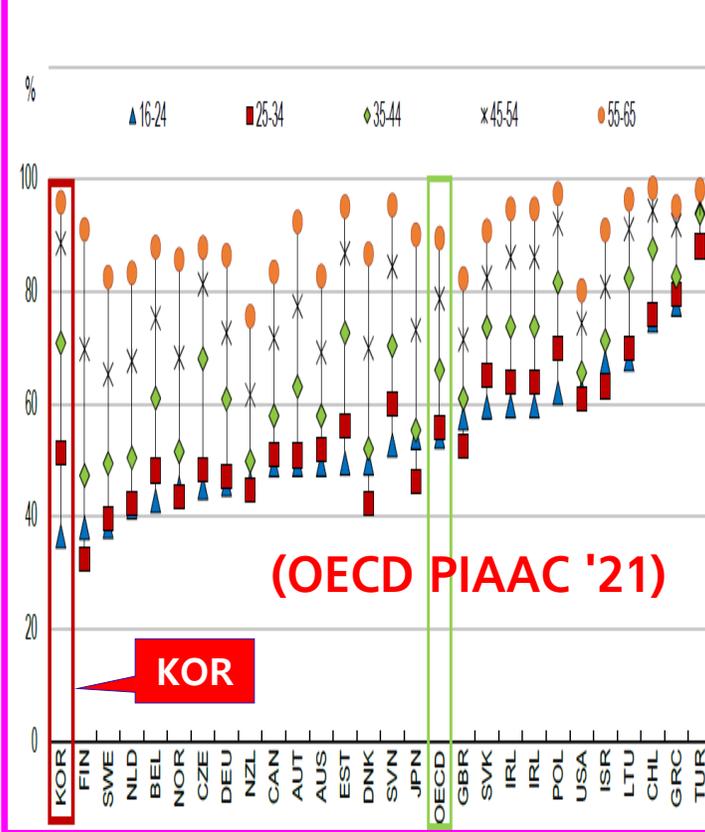
[그림 3-7]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(16~64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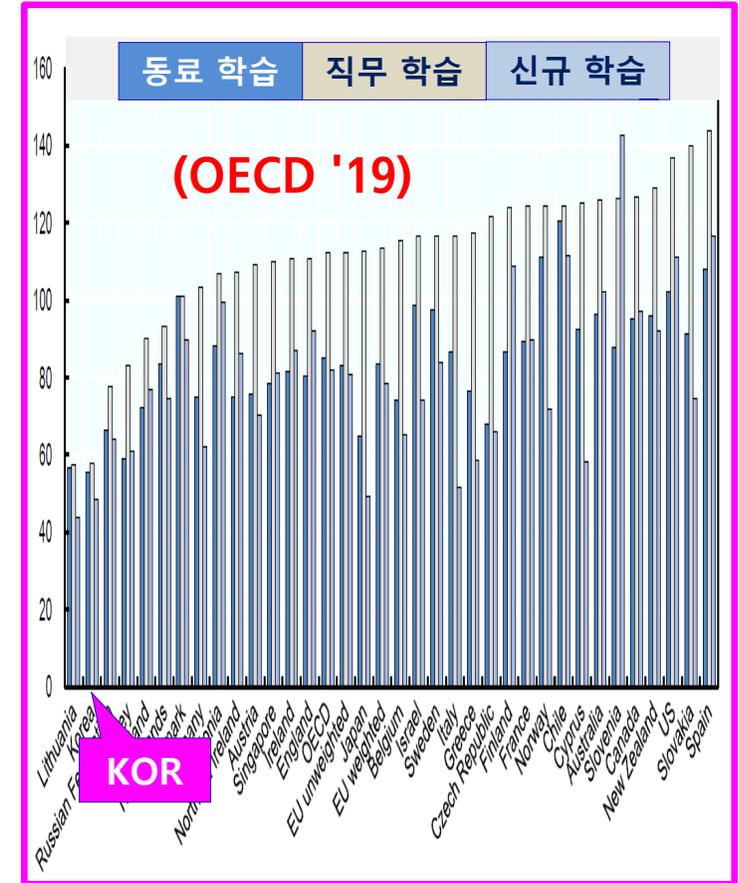
주: 역량은 언어능력(literacy)으로 측정하였으며,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(채창균 외, 2018).

## 연령별 디지털 미숙도

Share of adults with limited or no digital skills, by age group, 2012 or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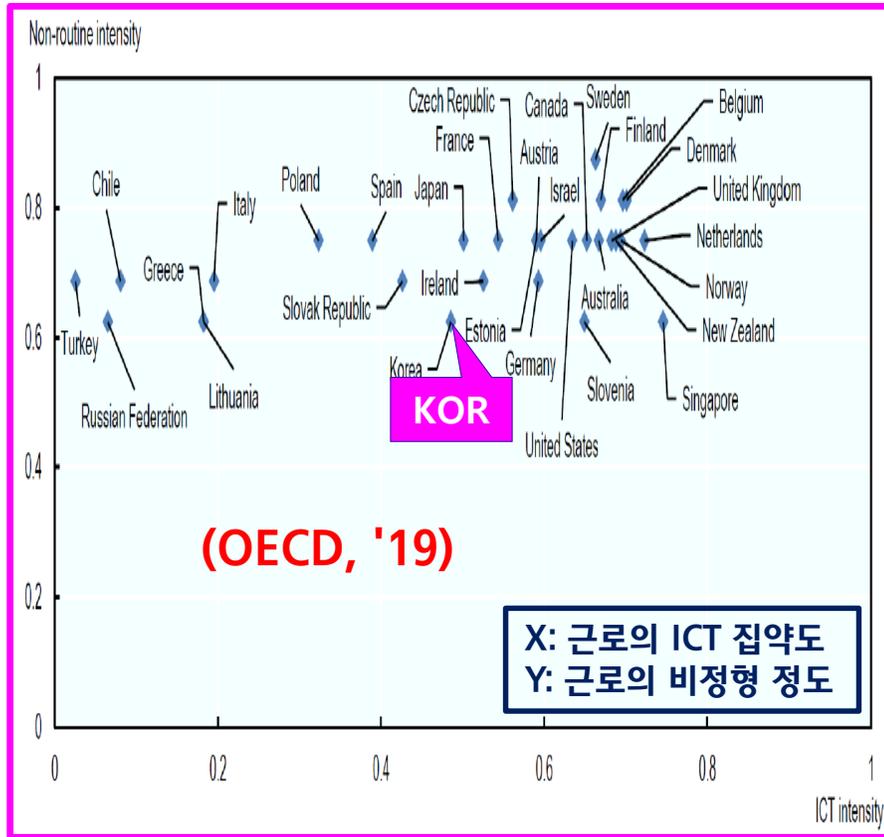


## 직장 학습 유형과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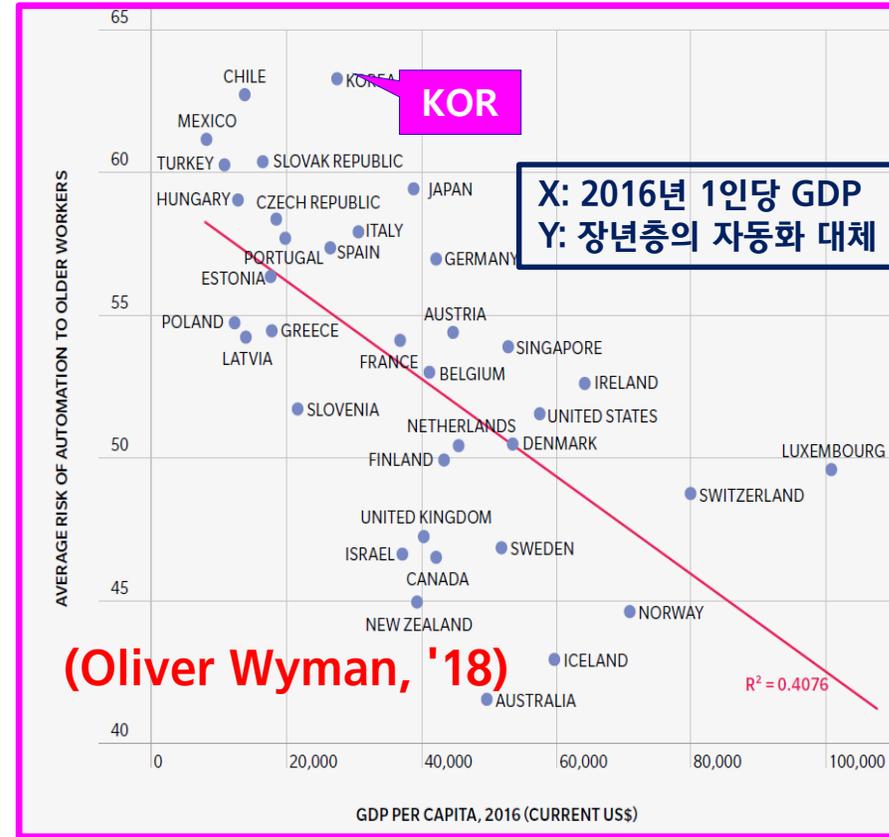


# 어정쩡한 숙련도 →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 농후

## 근로 난이도가 선진국 평균에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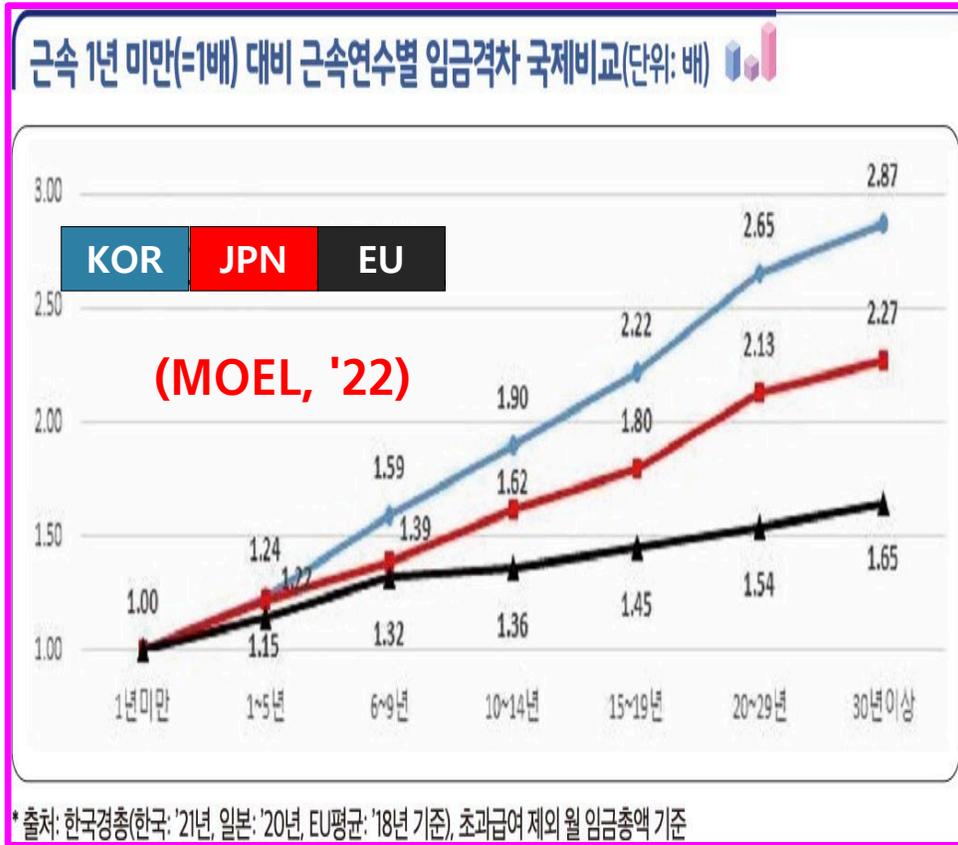


## 장년층의 자동화 대체 위험 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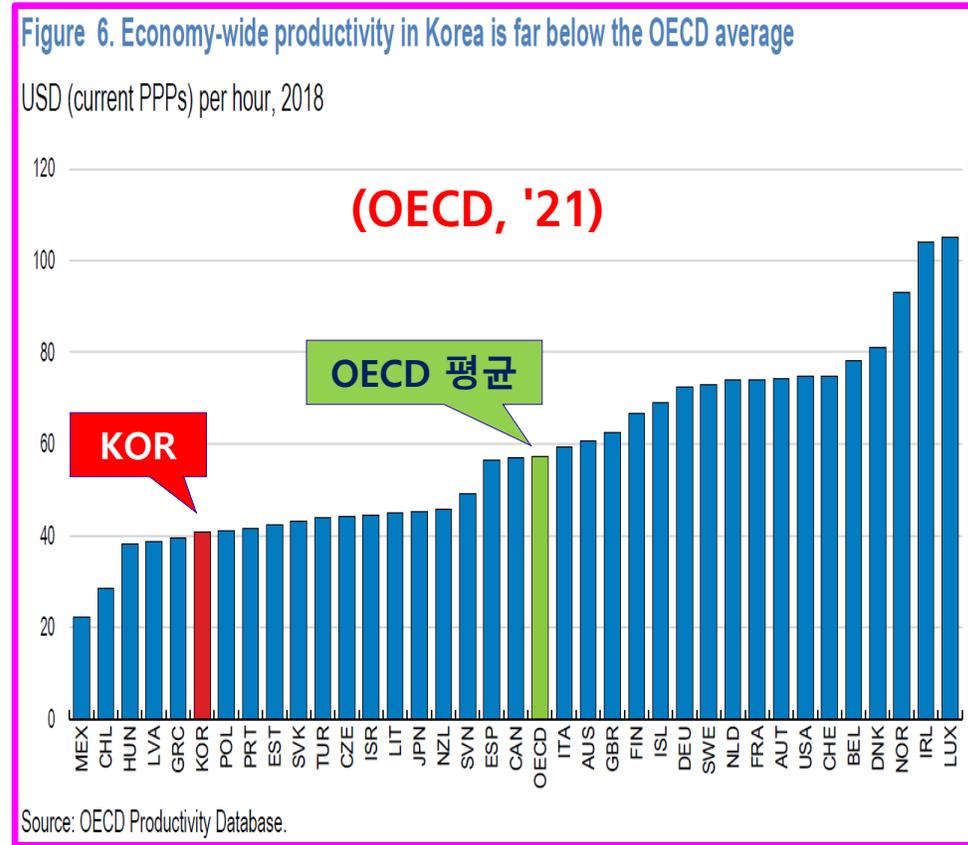


# 뿌리 깊은 연공서열과 낮은 생산성

## 연공(호봉)급에 따른 임금격차 상당



## 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%



# 1. 민간(II): 갈등 증폭, 법치/규율 이완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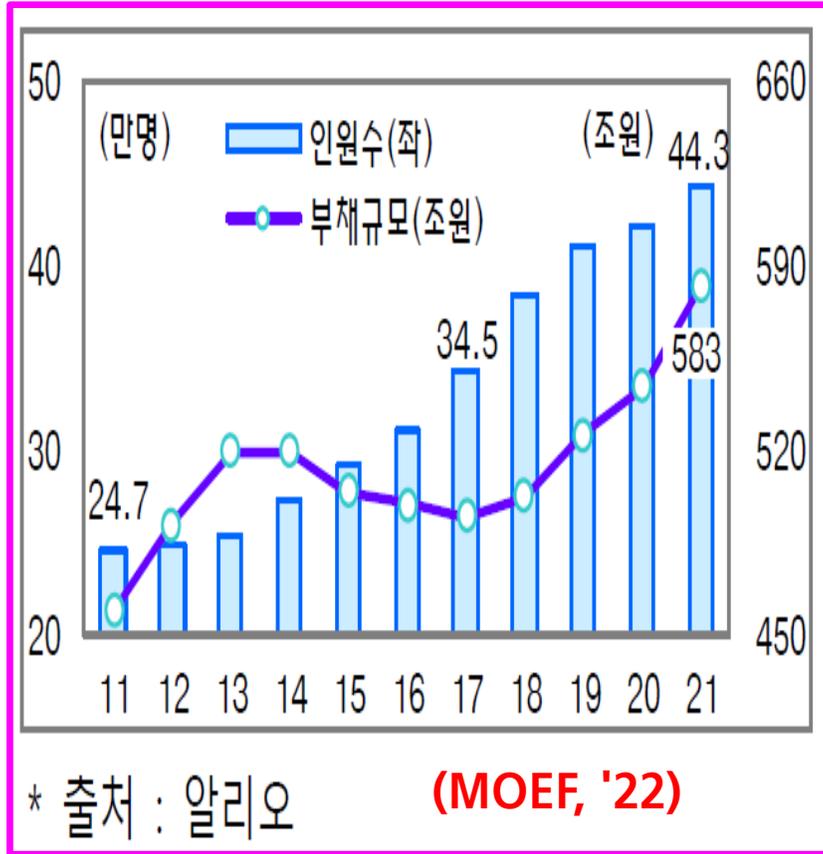
- 이념 쟁상의 원리/種族주의 발호 → 과학/상식/규범을 압도
  - ✓ 환경: 인천공항, 千聖山 도롱뇽, 청계천, 4대 강 淤, 脫원전, 국립공원 케이블카
  - ✓ 反美: 장갑차 사망, 미군 기지 이전, 광우병, FTA, THAAD 전자파
  - ✓ 反日: 위안부/징용 사과/배상, 敎學社 교과서, GSOMIA, 토착 왜구論
- '옹호 연맹'의 거부권 만연 → 합의/타협 至難
  - ✓ 강성노조: 불법/폭력 파업/점거/현수막/소음, 非노조원 탄압
  - ✓ 서비스산업의 문턱/울타리에 편승한 기득권: 원격진료, 차량 공유, 교육 개방
  - ✓ NYMBY/PIMFY/NOOMP: 방폐장, 송전탑, 반도체공장, 동남권 신공항, 해군기지

## 2. 정부(I): '큰 정부' 유산과 대중迎合 정치 → 민간 활력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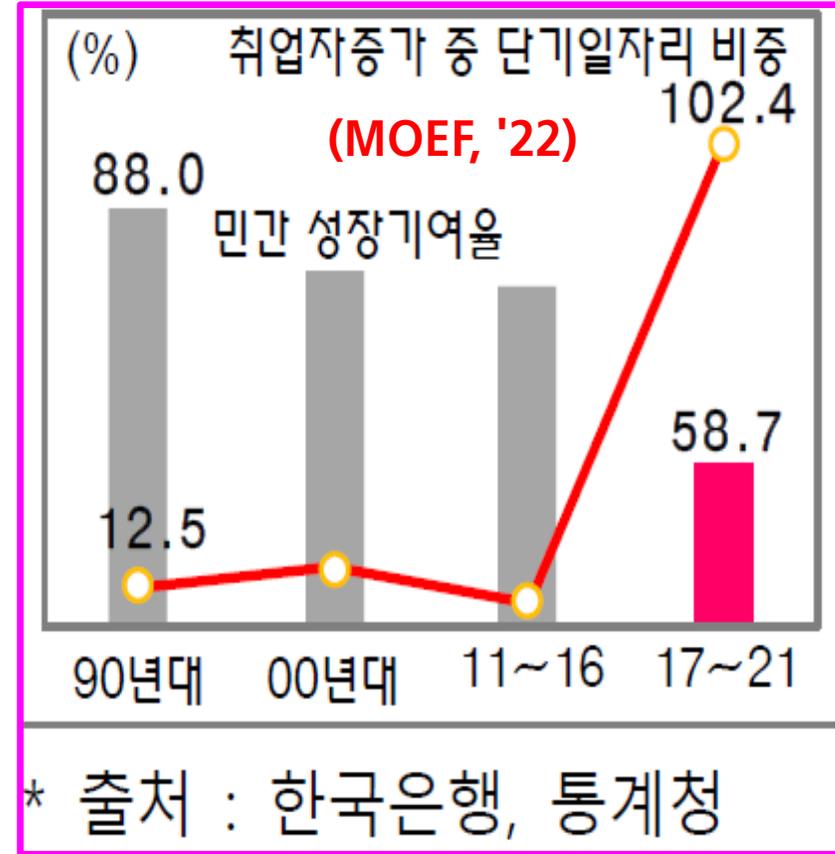
- 정부 만능의 '保姆국가' 풍조 득세: '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'
- 黨利黨略의 정쟁 → 정책 불확실성 고조
  - ✓ 무조건 찬성/반대(여/야가 뒤바뀌면 번복): 한미 FTA, 제주 해군기지
  - ✓ 前任과 차별: 원전, 금산분리, 성과급, 4대 강, 신공항, 해외자원 확보
  - ✓ 하수처리장이 된 사법부: 세종시, 4대 강, 전교조, 국정교과서, 통상임금, 검/수/완/박
- '합리적 무관심'과 '불합리한 편견' 확대 재생산 → '정부 실패' 누적
  - ✓ 대증요법 난무: 반값 vs. 무상, 재난기본소득, 講師法, 정규직 전환, 분양가 上限
  - ✓ '抑强扶弱'의 편 가르기: 多주택자 증과세, 자사고 폐지, 부자 증세, 마트 휴무
  - ✓ 영혼 없는 공직자/국책연구원의 합리화/뒤치다꺼리

# 공공부문의 규모/역할 급팽창

## 공공기관 인원과 부채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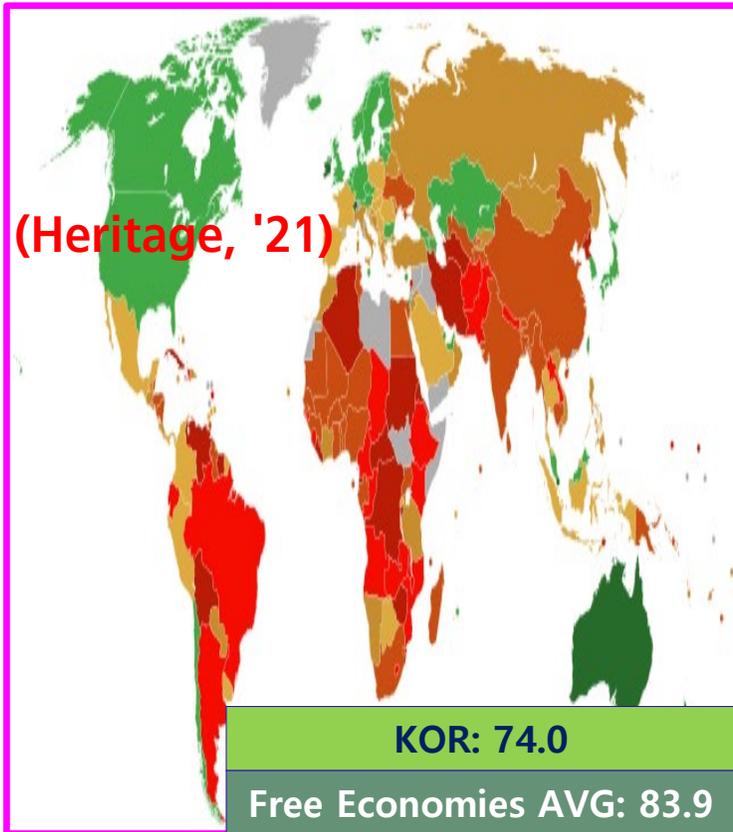


## 민간의 성장 기여 하락, 단기 일자리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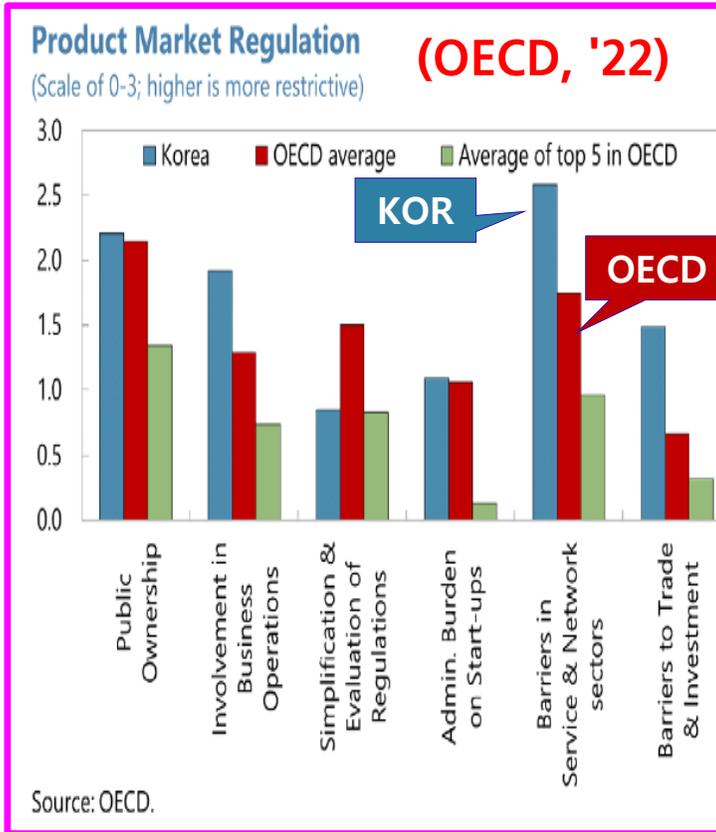


# 과잉/획일 규제로 민간 활동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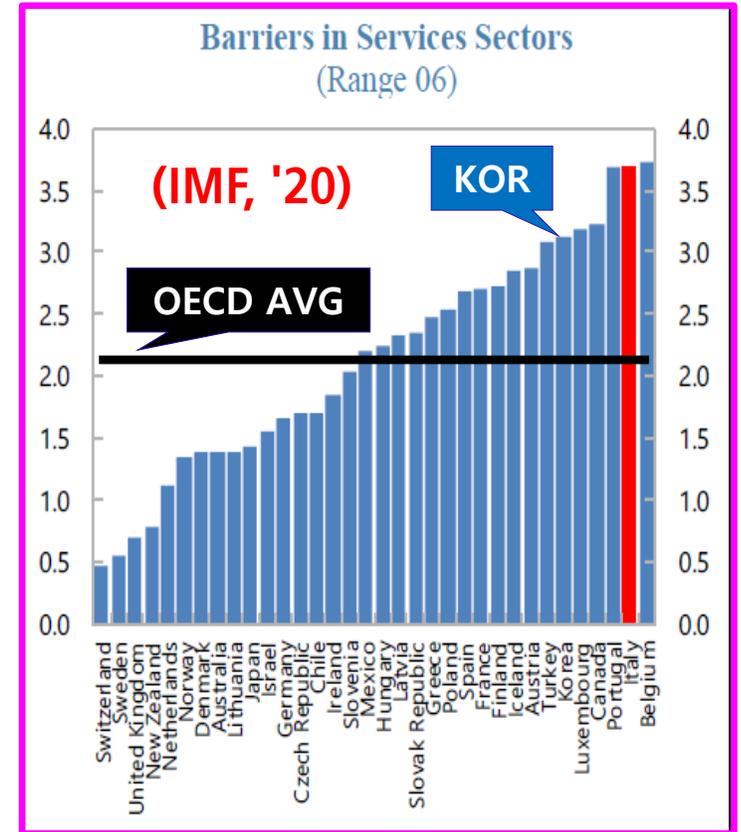
## Heritage 경제 자유도



## 상품시장 규제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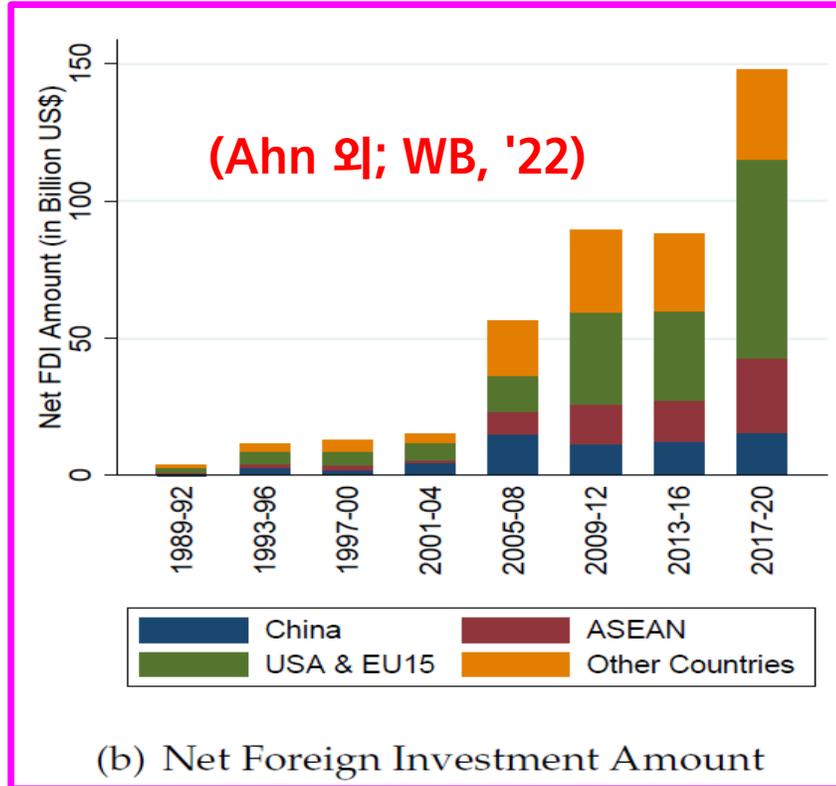


## 서비스산업 장벽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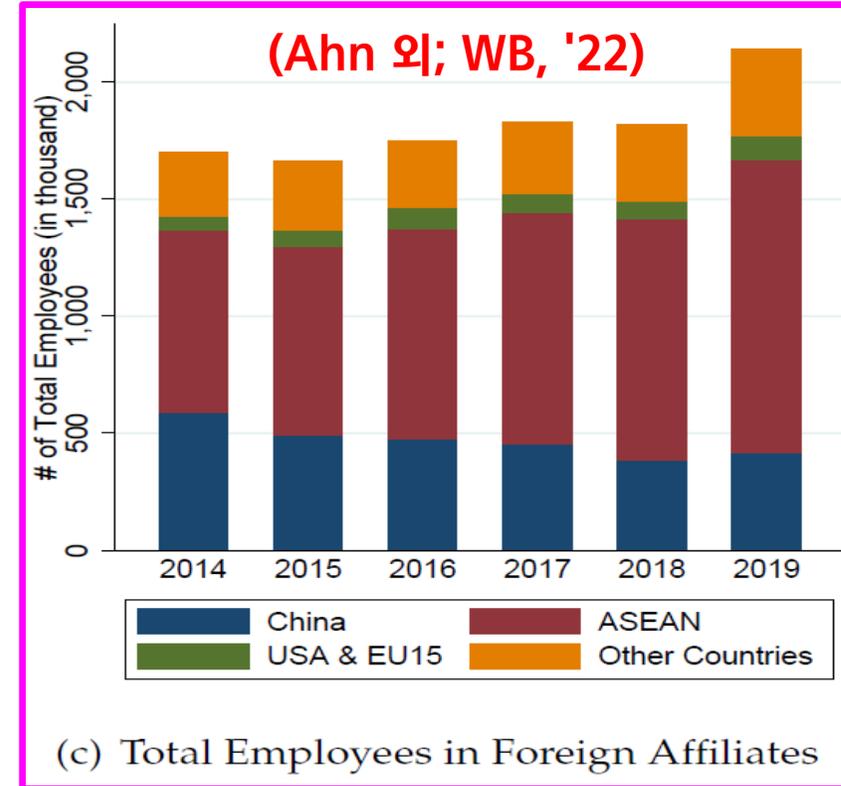


#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→ 해외로 일자리 유출

## 한국기업의 지역별 해외투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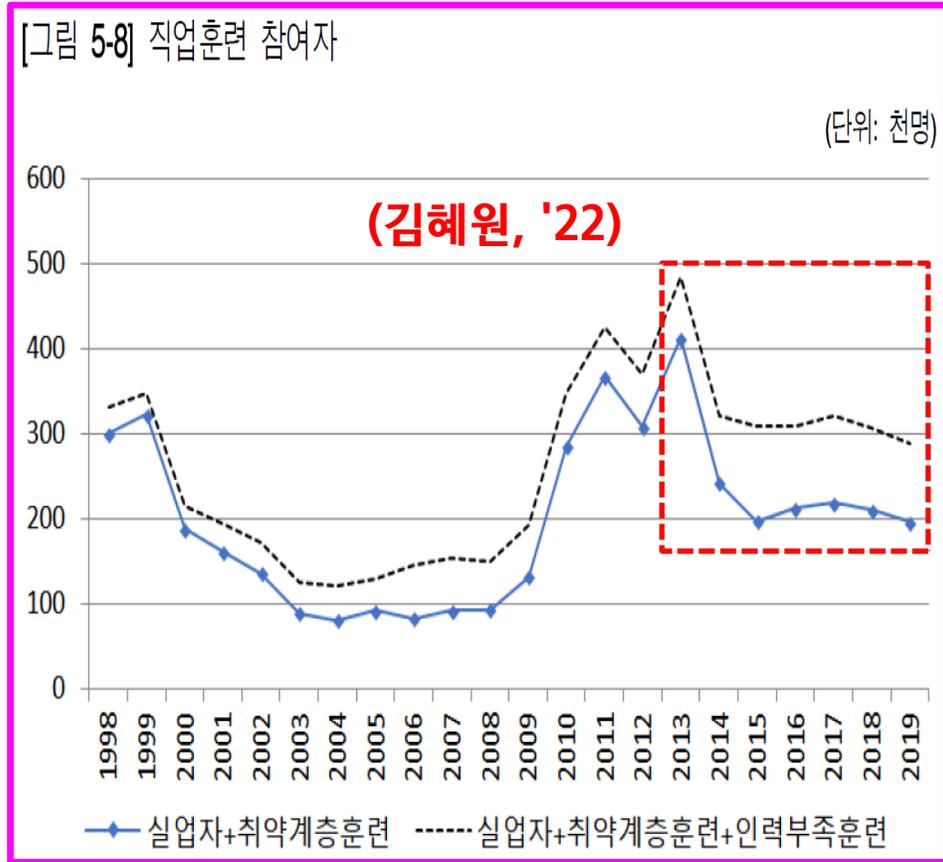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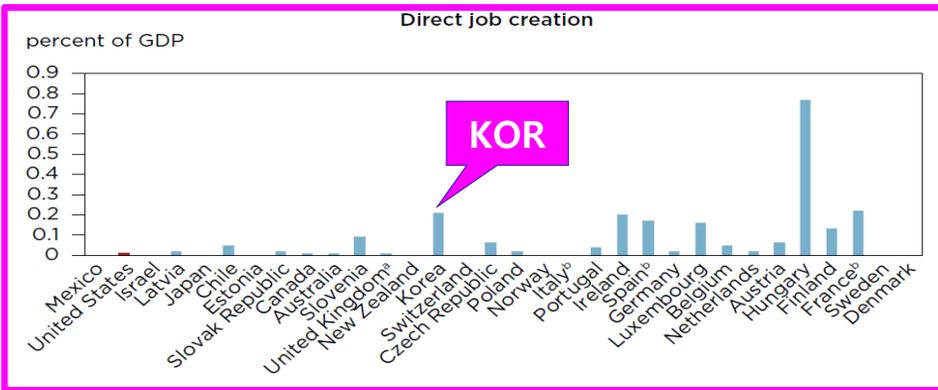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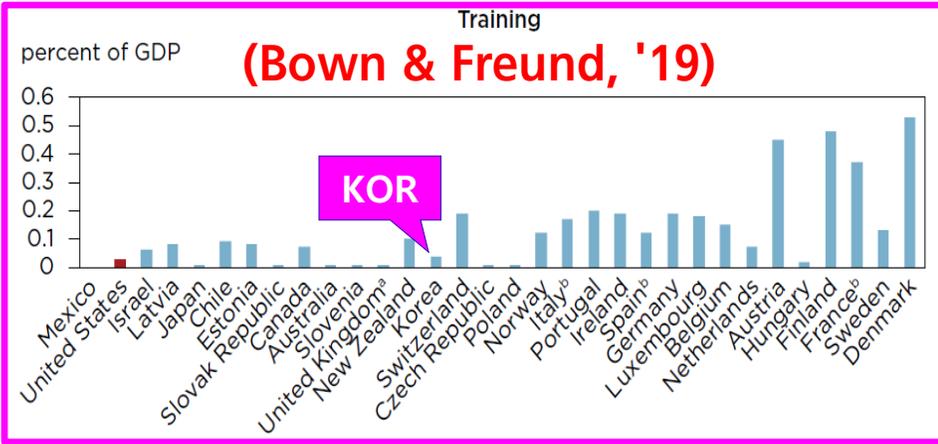


##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고용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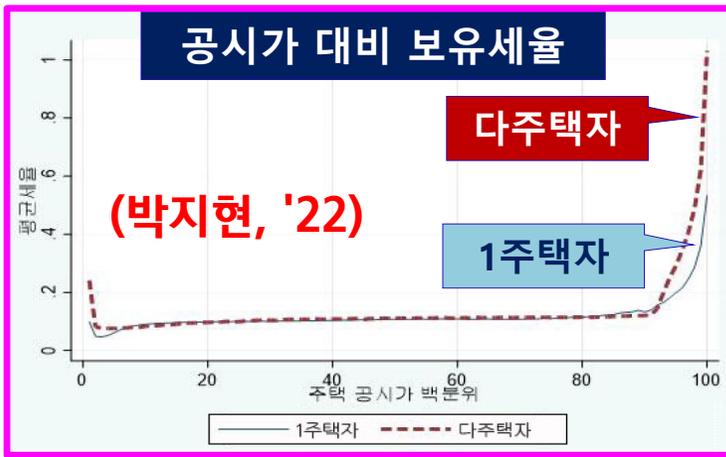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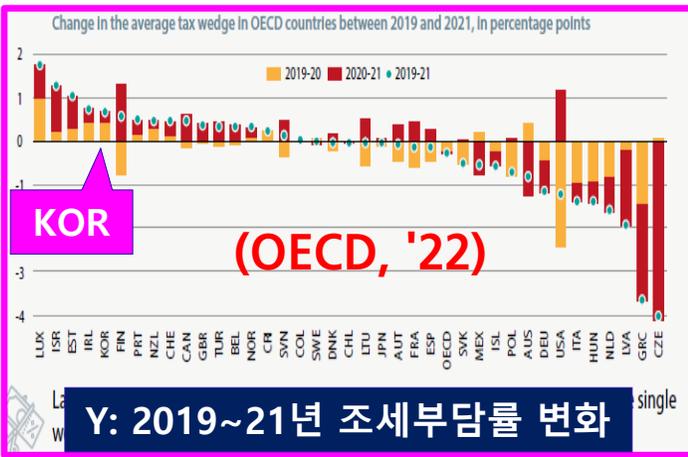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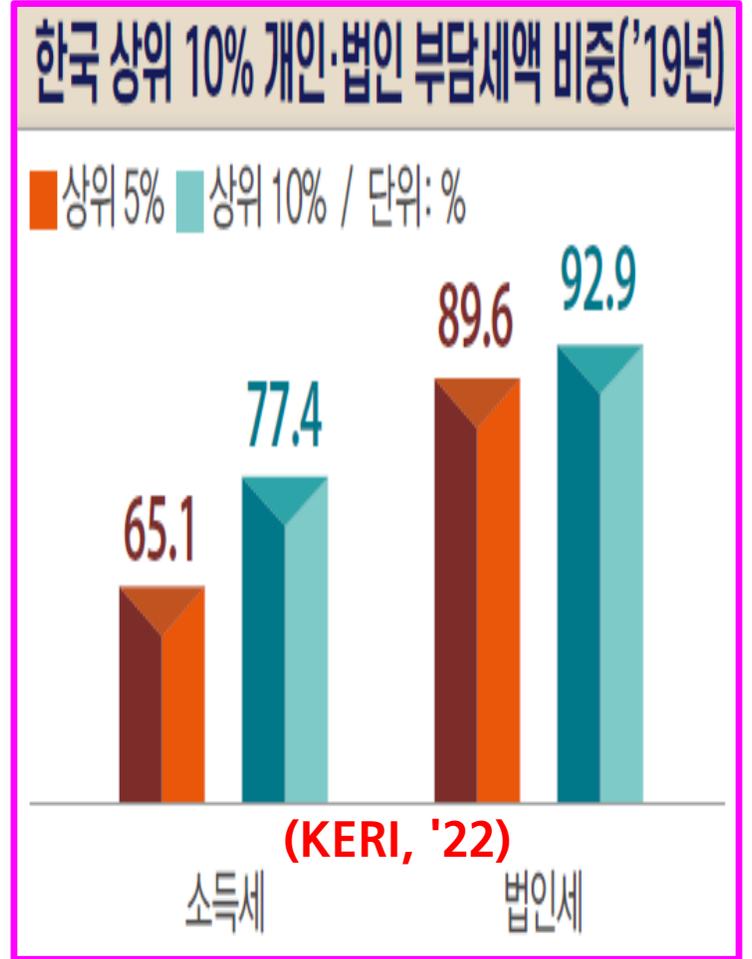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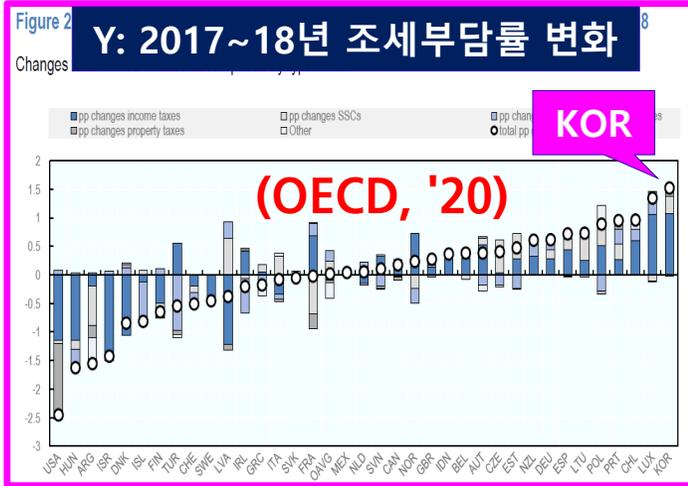


# 재정의 시장 개입 가속

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미흡(左上), 직접 일자리 창출엔 적극(左下), 직업훈련 참여자 급감(右)



# 조세(左)/보유세(中) 증가율 최고, 상위권 편중(右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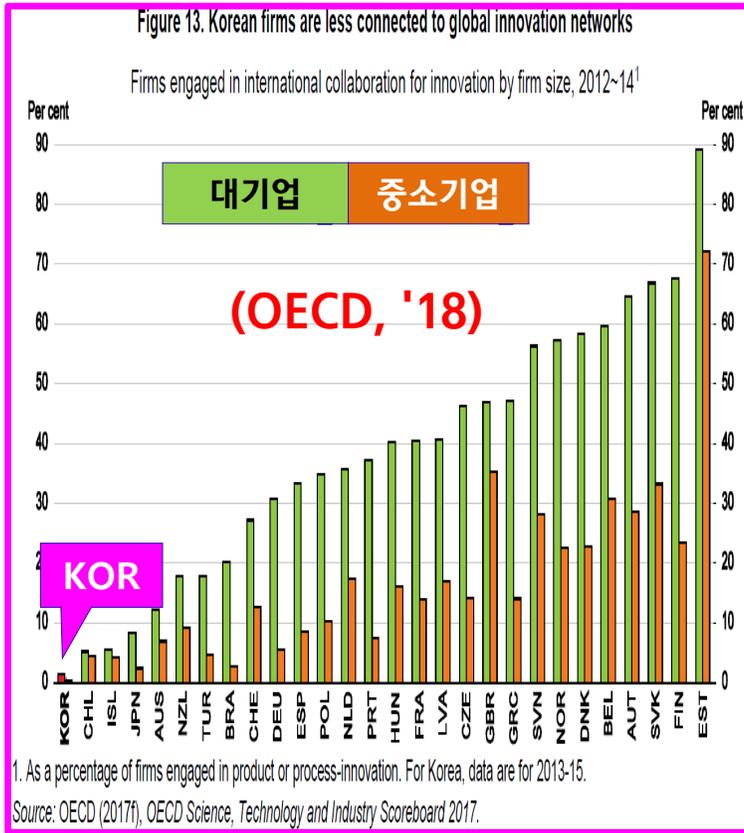
## 2. 정부(II): 선진국 표준과 동떨어진 규범/관행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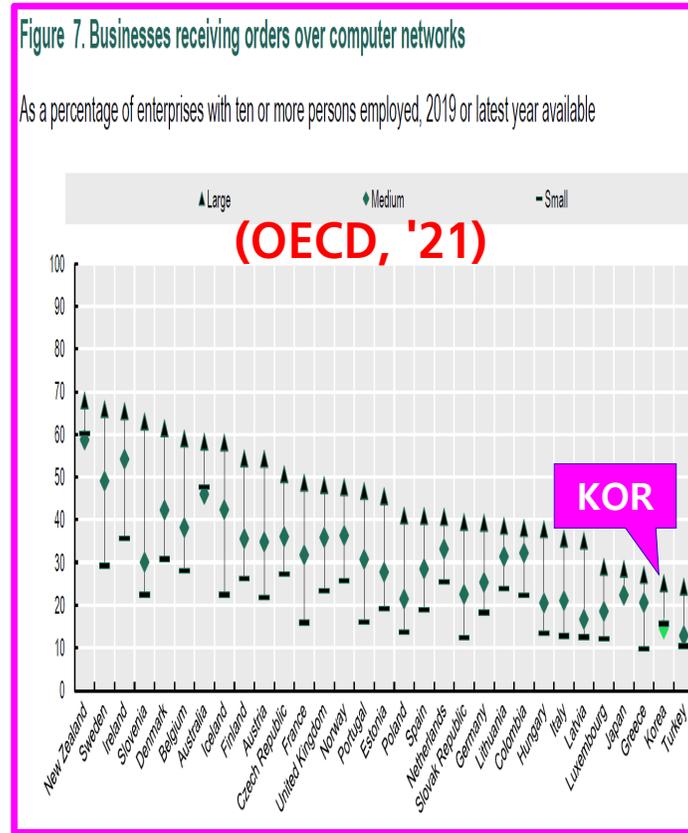
- 기업가정신 위축, 혁신과 新산업 태동 지체
  - ✓ 디지털/데이터 개방/공유/협업 등 혁신 생태계 취약
  - ✓ 낮은 면허/자격/감독/평가의 문턱과 칸막이
  - ✓ 가혹한 중대재해 처벌, 화학물질 평가/등록/관리, 무역 이익 공유 등
  - ✓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/지원과 엄격한 대기업집단 규제 → 성장 사다리 약화
- 획일 규제와 강성 노조로 자율/책임의 노사관계 요원 → 고용 제약
  - ✓ 정규직/전일제/생산직 위주 경직된 법규/관행: 'Procrustes의 침대' (조준모, '22)
    - 기간제 사유/기간, 호봉 등 임금체계, 근로시간 예외, 정산 기간 단위
  - ✓ 번듯한 직장과 정규직 중심 노조의 횡포, 노조원의 非노조원 탄압

# 제조업을 Upgrade할 혁신/디지털 역량 확보/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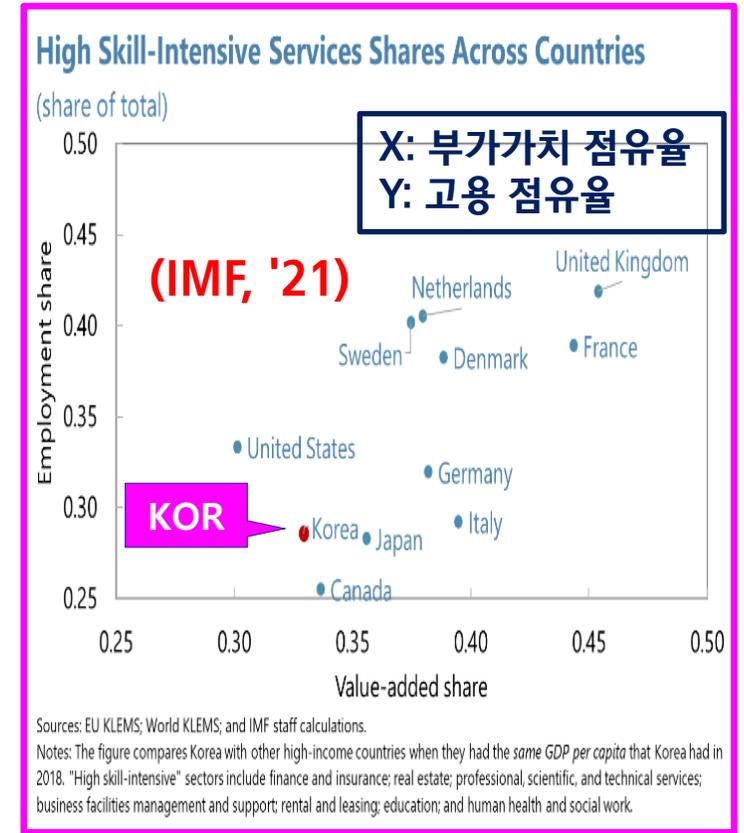
##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최하위



## 컴퓨터 네트워크 受注 기업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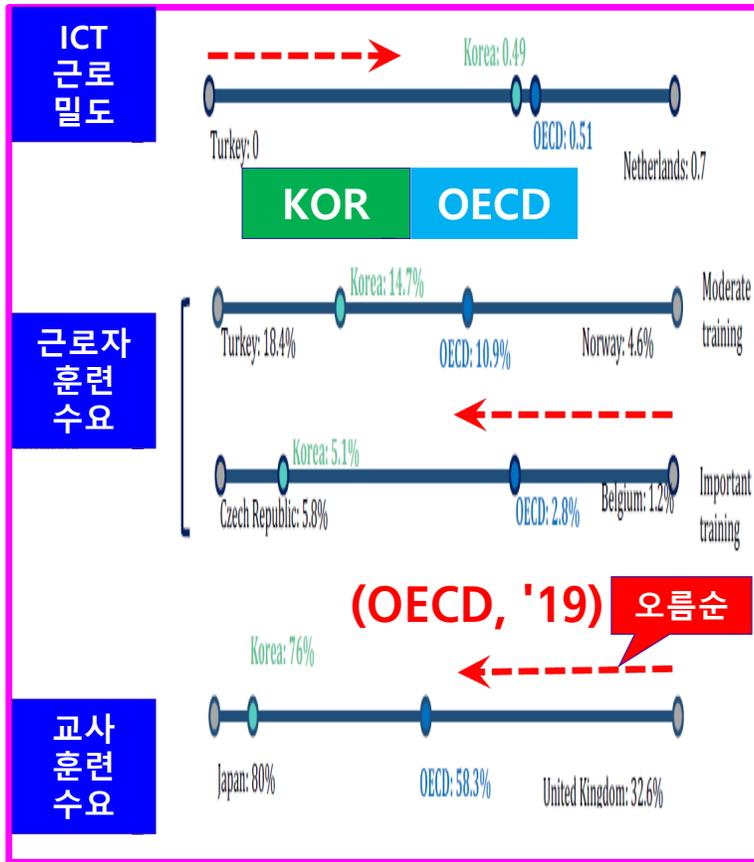


## 高度기술 집약 서비스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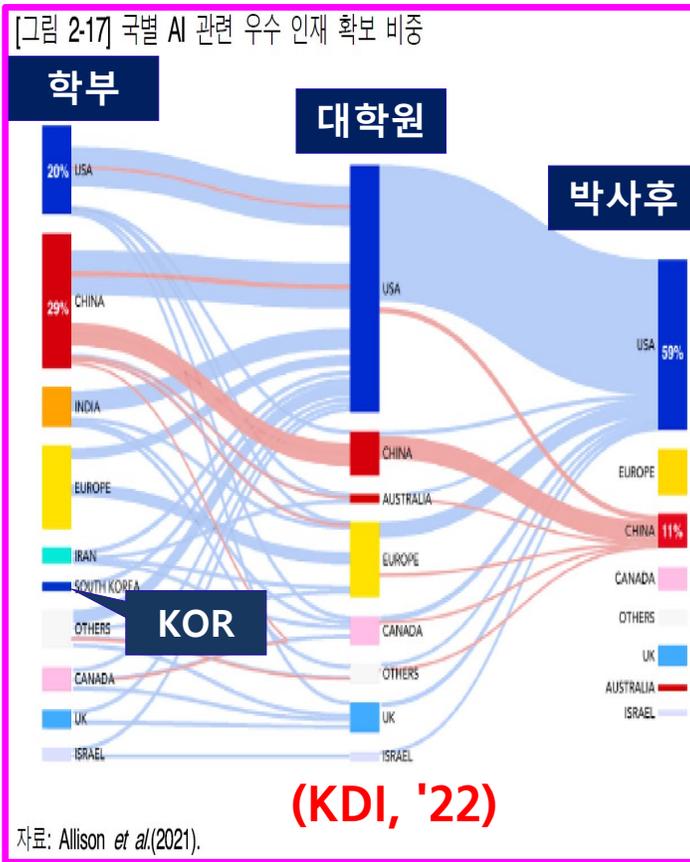


# 디지털/AI 숙련 미흡, Big Data 활용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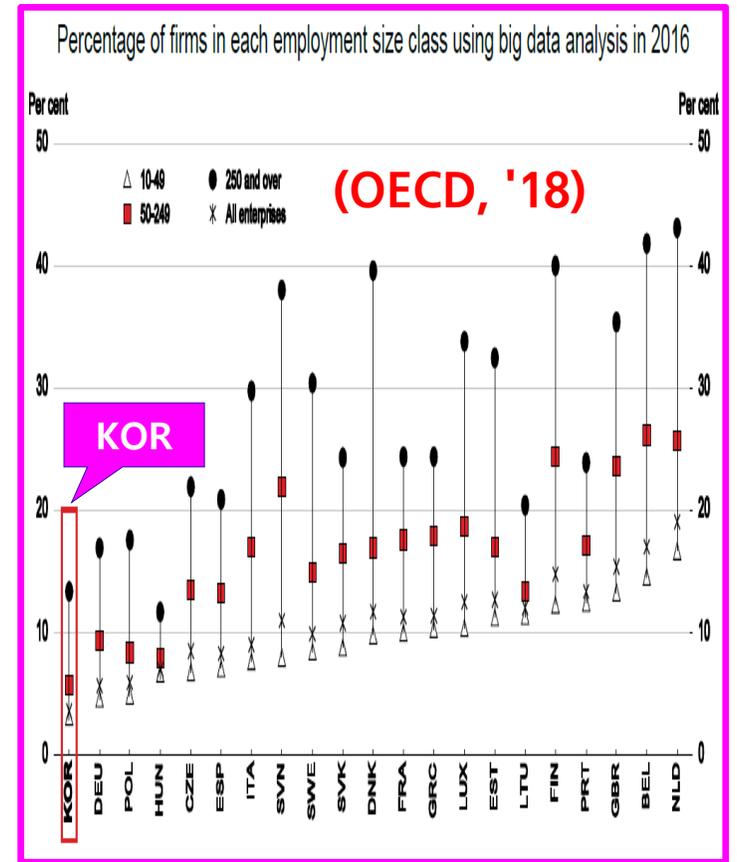
## 디지털 훈련 수요 OECD 평균 초과



## AI 인재 태부족



## BD 활용 기업 비율 꼴찌



# 경제력 집중도(OECD 중위권) 지속 하락 vs. 규제는 강화

한국	매출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자산집중도('20년) OECD 19개국 기준	한국 추이(2011~2020)
100대기업	15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58.1% → '20년 45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59.1% → '20년 50.6%
30대기업	14위	15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1.1% ■ 자산집중도 '11년 42.1% → '20년 36.3%
10대기업	11위	13위	■ 매출집중도 '11년 26.1% → '20년 19.6% ■ 자산집중도 '11년 27.9% → '20년 24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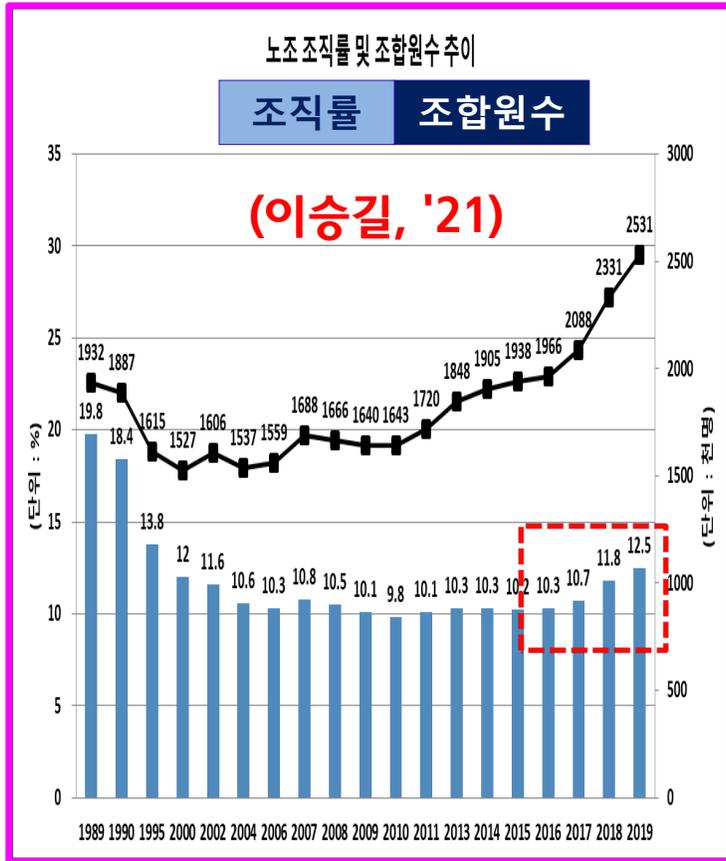
\*OECD 38개국 중 기업데이터가 1,000개 이상인 19개 국가 중 한국 순위 (KERI, '22)

## • 상법/공정거래법 ('20년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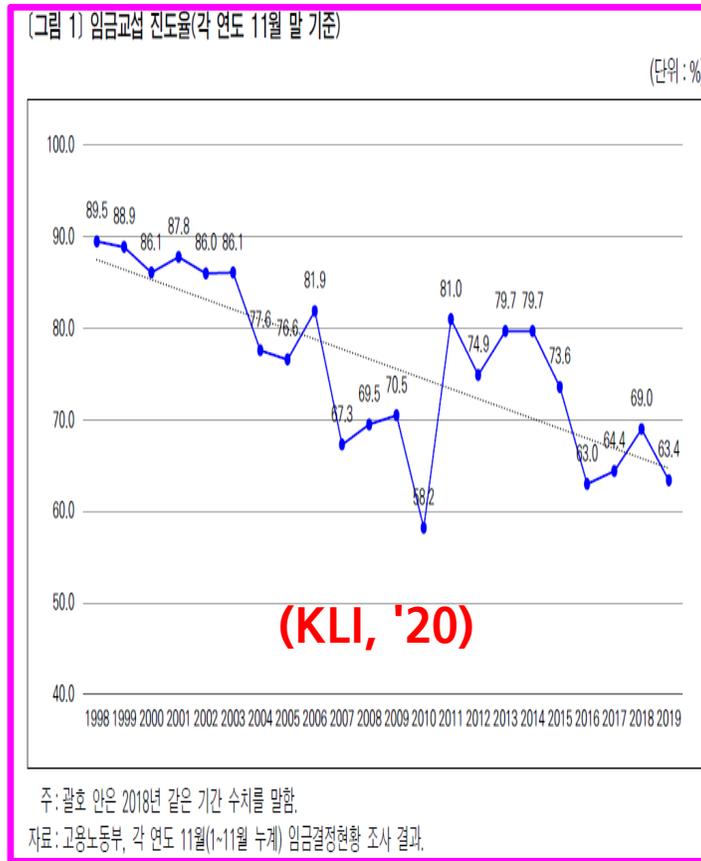
- 대주주 의결권 제한
- 주총 보통/특별결의 요건 엄격
- 차등의결권 부인
- 시장지배력 추정 기준 이원화
-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모호
- 정보교환 담합 추정
- 제재 수단/수준 과도

# 노조 영향력과 노사 불협화음 확대

##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



## 임금교섭 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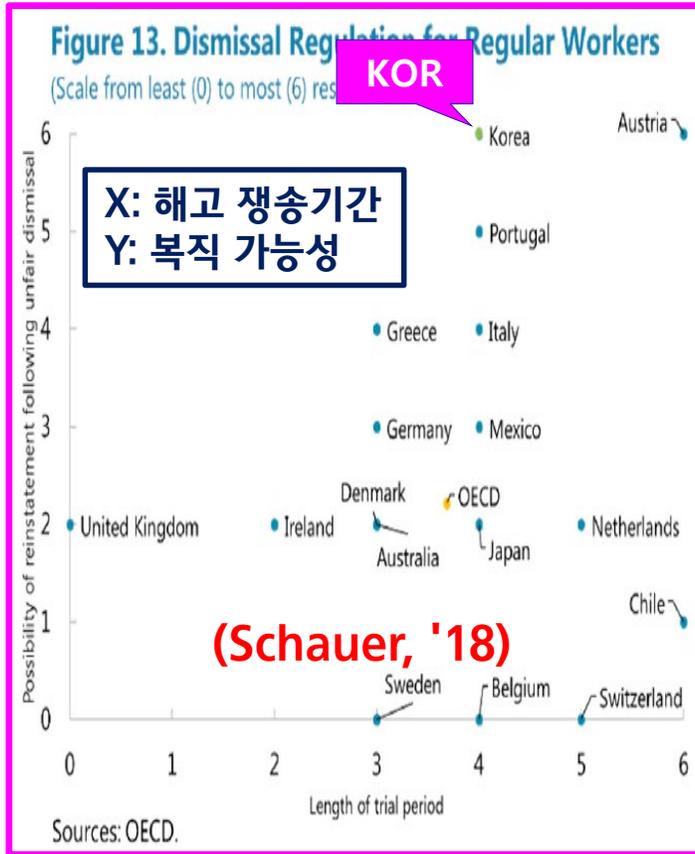


## 파업 건수와 근로손실일수



# 고용의 역동성/다양성 미흡 → 고용률 제약

## 정규직 해고 규제 강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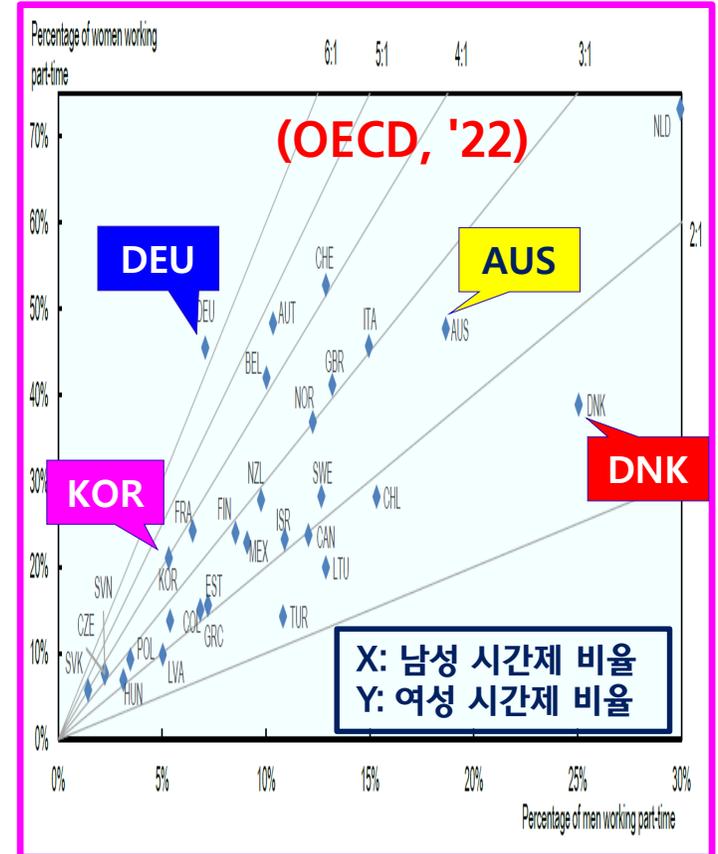
## 종사상 지위 고착

**Table 2. Flo 지위의 연간 이동 확률 (2013-2014)**

	To			
	Regular	Temporary	Self-employed	Non-employed
Regular	92.5%	1.4%	0.9%	5.1%
Temporary	4.8%	81.4%	1.7%	12.2%
Self-employed	1.3%	2.2%	92.1%	4.4%
Non-employed	3.6%	4.1%	0.9%	91.4%

Source: KLIPS, author's calculations. **(Schauer, '18)**  
Note: Non-employed includes unemployed and inactive.

## 시간제 근로 未활성화



I

격랑 속 우리 경제



II

앞으로가 더 문제



III

걸림돌



IV

침로

# No Pain → No Gain

---

- **중규모 개방 경제 → 세계경제와 동조화 불가피**
  - ✓ “발등의 불은 꺼도, 손쉬운 지름길은 없다.”
- **욕먹더라도 긴 호흡으로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에 진력**
  - ✓ 성장률 1%p의 힘: 소득 2배 소요기간 (연 1% 72년, 2% 36년, 3% 24년)
  - ✓ 돈 들지 않는 규제개혁 최우선: **기득권 축소, 保姆국가 탈피**
  - ✓ 성장과 분배는 동행 → 학습(L&D) 개혁, 일자리 창출, 가족가치 복원에 역점
    - **노동개혁, 혁신(디지털/AI) 역량 향상, 지속 가능한 '일하는 복지'**
    - **사회규범(법치/투명성) 확립과 공민 의식 함양**
  - ✓ **중기 전략 과제도 매진: 결혼/출산/이민, 해외자원 개발, 탄소 생산성 제고**

# 1. 가용 인력 극대화 & 역량 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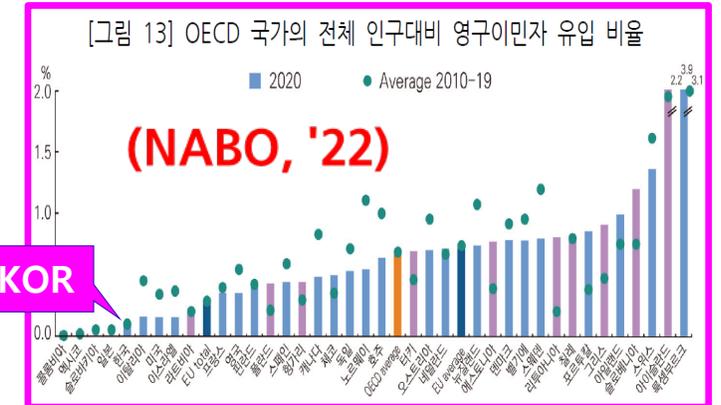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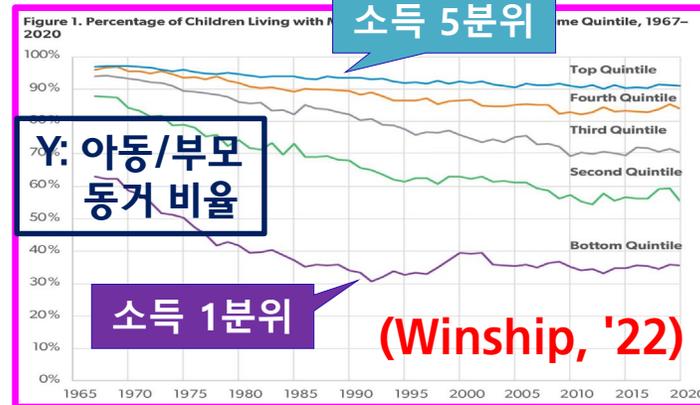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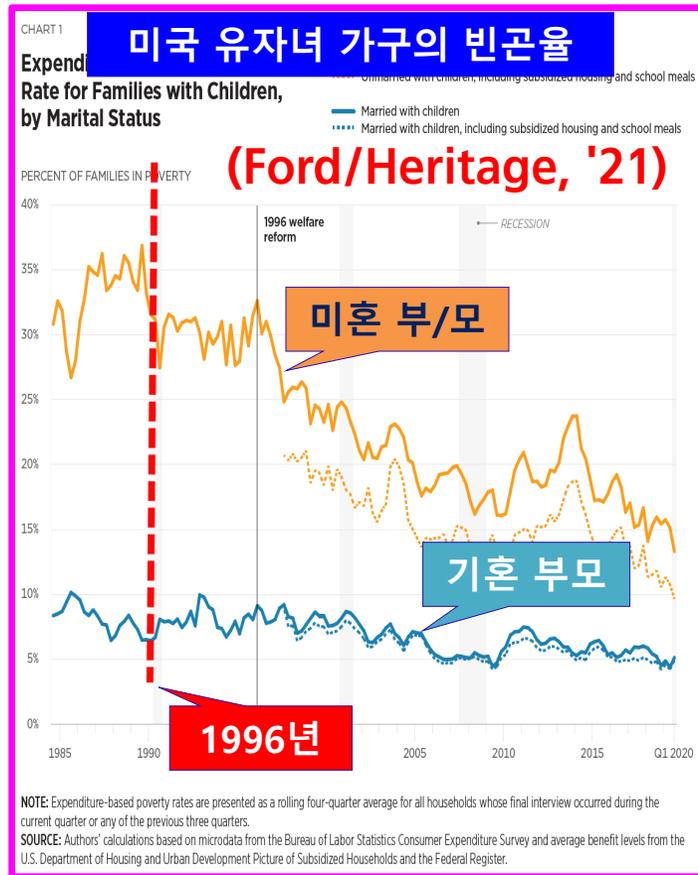
---

- '일하는 복지'로 자활 촉진: 美 '96 복지개혁 → 빈곤층 감소 (Weidinger, '21)
- 조기 入職: 조기 취학, 취업 후 진학, 징/모병 혼합, 학부 단축 (Poliakoff, '20)
- 평생학습/개발(L&D) 정착: MOOC, 중/장년 ICL
- 전공/계열을 시장수요에 걸맞게 조정: STEM vs. HEAL, 교과 선택 (Brickman, '22)
- 교육의 자율/다양성 제고: 자사고 확대, AI 맞춤형 지체 학생 교육
- 이민 문호 확대: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
- 고용과 인력 이동의 유연성 제고, 年功給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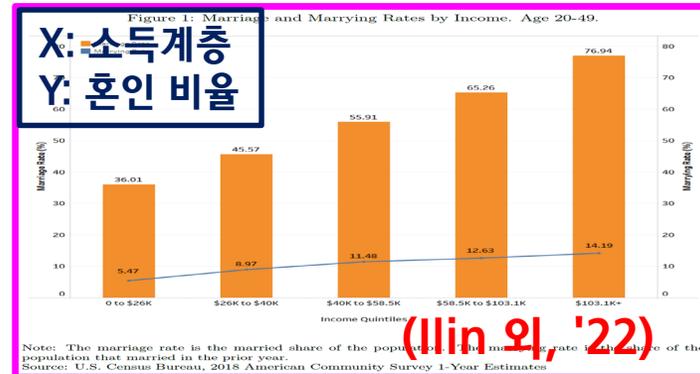
# '일하는 복지', 양부모 가족과 L&D가 지속 성장의 디딤돌

## '96년 복지개혁 후 빈곤층 격감(美) 아동/부모 동거와 소득은 비례(美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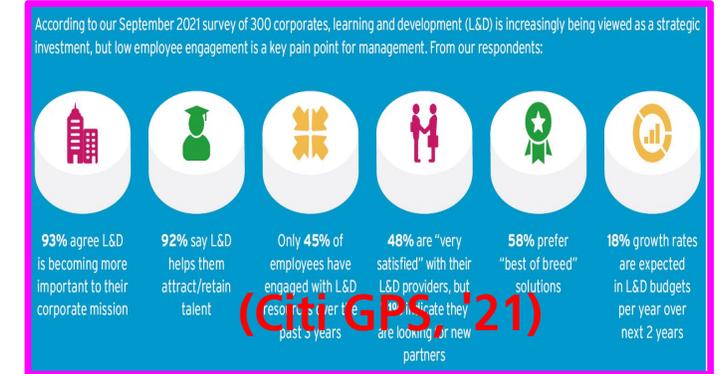
## 한국의 이민자 비율 최하위권



## 혼인과 소득도 비례(美)



## 학습/개발은 年 18% 성장 전망



## 2. 자유와 기회 확대 → 민간 활력 증진

---

- 자율/창의/경쟁/개방/혁신/다양성 고취 → 유인/책임 강화
  - ✓ 균등한 기회 보장, 공정한 규칙/질서 확립을 병행
    - 신호등/카메라/과속 방지턱 vs. 일단 멈춤/자율 교행
- 정부 입김 축소, 시장 친화적 규제, 선진국 표준 수용/창출
  - ✓ M. Friedman: "시장경제는 가난을 이기는 최적의 기제"
  - ✓ 반면교사 J. Curley 보스턴 시장(20C 전반): '가난한 사람들의 시장' 자처
    - 방만한 복지, 만성 부패, 세금 폭등 → 일자리 고갈, 재정 파탄
- 전문가 검증/唱導/公論/熟議 활성화: 교육/에너지/연금 등 백년대계

# No pain, no gain!



啐啄同時

